

**금추일어** 선과 악을 깊이 관찰하  
면 마음이 그 두려워하고  
꺼러할 것을 알 것이니, 두려워하며 범하지  
않으면 마침내 길(吉)하여 근심이 없다.  
<법구경·명철품 250절>

# 東大新聞

발행처	동국대학교
편집장	김정민
주필	김주환
편집인	김정민
전화	100-715
팩스	100-714

본사: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2660-349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21770-2057)

제 1172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5년(불기2539년) 4월 12일 (수요일)

창간 45 1950-1995  
돌

## 正名立論

祝 東大新聞創刊 卅五周年 李鍾燦

**창간기념 축하 휘호**

“명분을 바르게 하고 언론의 이권을 정당하게 세워라”

이 중 찬 (국문학)교수

◇ 창간 45주년 특집호에 부쳐 - 본사 초대주간 회고기

### “신문을 창간한지 45년이 되고, 나는 명예교수가 되었다”

..... 명진관을 짓기 위해 더 뉘는 모습은  
1면에 실었다가, 인쇄된 신문은  
동팡 태우게 된 사건도 있었고...

일찍이 1954년 국어국문학과 강사로 모교의 강단에 서기 시작하자 사변전에 대학가에서 가장 먼저 발간했던 '동대월보(東大月報)'의 속간을 서둘렀었다.

그래서 학교당국에 잘라서 어렵사리 경비를 꼬집어냈다. 그것이 지금의 동대신문의 타브로이트판 제3호다. 다음 제4호부터는 지면을 일신하여 고정란 '메이리'도, 학술논문도 실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가 야기됐다. 곧 석조건물인 명진관을 짓기 위해 터를 닦기 위한 서너대의 불도저 소리가 동악을 진동하자 신문의 제1면을 장식하고자 나의 가슴은 설레었다. 즉시 현장을 취재하고 사진

사를 불러다가 사진을 찍어 전면을 화보로 바꾸기 위해 확대까지 해서 당시 신문인쇄를 맡기고 있는 서울신문사 공무원으로 달려가서 통사정을 해서 찍은 신문 통치를 택시에 싣고 최봉수 문리대학장께 봤더니, 1면의 사진관을 보시자 무조건 배부금지라는 바깥에 하도 부아가 치밀어 큰소리가 오갔다.

마침 김임석 서무처장께서 옆에 계시다가 지독한 호남 사투리로 비록 한장이라도 밖에 나가면 신교사 건설에 막대한 차질이 온다시며, 가뜩이나 매서운 눈매로 기겁을 하시면서 옆방의 대학원장 양주동선생께 협조를 호소하셨다. 그러자 자초지종을 알게 되어 숙절없이 좌절해야 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안스럽다.

워낙 정식허가도 나지 않은 판에 당시 총장 백성욱선생의 율력으로 당국의 묵인하에 공사를 벌였는데, 현장사진이 나가면 물적증거의 제공이 돼서 문제가 심각해진다해야 난들 고집만 부릴 수가 없어 안간힘을 씌하면서 모든 자료통치와 함께 신문 통치를 대학본부건물 지하의 보일러실로 갖고 가

서 책임지고 동장 소각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소동으로 해서 나의 주간의 목은 달아났고, 아울러 그로 말미암아 무려 8년간의 강사생활을 감수해야 했다.

또 하나 있다. 54년 당시는 대학신문은 서울대학교와 우리 대학 뿐이었다. 그런데 서울대신문은 하마 14호를 내고 있는 판인데 우리는 고작 4호를 찍는 처지여서 심사가 무척 사나웠다. 그래서 나는 무작정 4호를 슬쩍 14호로 찍었다. 만일 거둬가면 아예 미처 오식했다고 우길 판이었는데 아무도 지적이 없었고, 공보처에서도 그대로 넘어간 바람에 다음부터는 버젓이 15호로 매기며 시치미를 떼었다. 그러니까 동대신문의 보관지는 4호부터 13호까지는 찍지 않아 없을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동대신문은 동대월보에서 비롯하여 동대신보로 간행하다가 월보라는 바람에 제호를 바꿀 수 없다는 당국의 억지여서 부득이 학생회의 효용을 받아 주간으로 발행할 신문지대의 정수로 경비가 마련되자 비로소 '동대신문'으로 고쳤다. 여기에는 편집국장 송혁(송재갑)선생의 수고가 많았다. 그래서 제호는 당시 서예의 대가인 손재형선생의 휘호를 받아 쓰다가 지금은 김용현선생의 휘호로 바꾸어 쓰고 있다.

이 병 주  
(본교 명예교수)

### 읽을거리

7 동대신문 45년 발자취  
지면중심으로 격동의 80년대와 변화와 모색의 90년대를 재조명해 본다.

8-9 특별좌담 - '21세기 한국대학교육의 선택'

경쟁과 협력 시대인 21세기를 맞아 대학마다 독자적인 대학모형을 개발해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10 나의 동대신문사 기자 시절  
고뇌와 시련...대학신문 기자로서 겪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시대적 아픔을 들어본다.

11 기획 설문 조사  
독자들이 바라보는 동대신문과 학내 상황에 대해 알아 본다.

12 '말미잘' 유현목 감독을 만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영화를 제작한 유현목 감독을 통해 그의 14년만의 작품인 '말미잘'을 지면으로 감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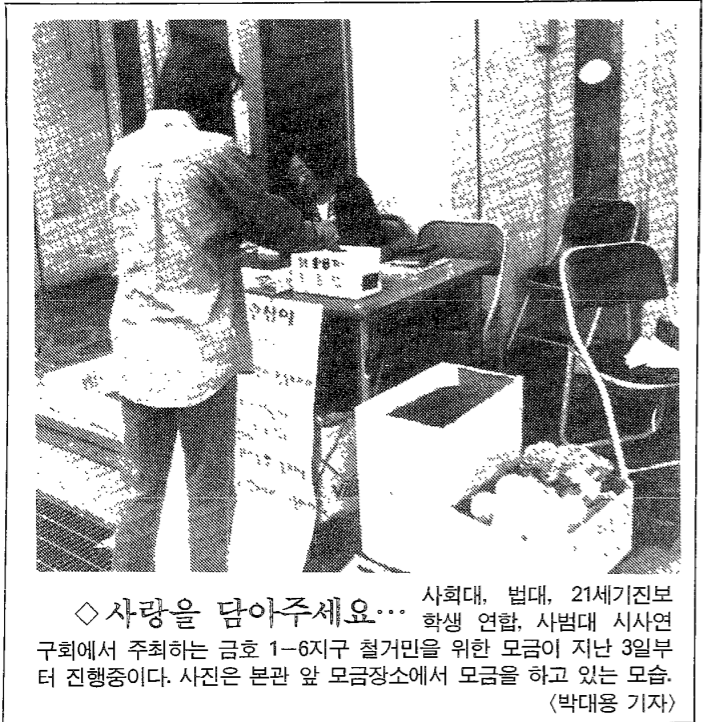
매일 마지막주 금요일은 캠퍼스 차없는 날입니다

## “60억짜리 자가용 타고 오세요”

“걷는 것도 좋아요”

실시일자: 매일 마지막주 금요일  
4월28일 시행  
7·8·12·1·2월은 시행하지 않음  
예의차량: 학내방문차량 (배달차량, 은행·우체국 공무원차량)  
장애자 차량  
의부감사 차량

동대신문사



◇ 사랑을 담아주세요... 사화대, 법대, 21세기진보 학생 연합, 사범대 시사연 구회에서 주최하는 금호 1-6지구 철거민을 위한 모금이 지난 3일부터 진행중이다. 사진은 본관 앞 모금장에서 모금을 하고 있는 모습. (박대용 기자)

### 불교대학원 3천8백만원 모금 원장 취임법회서 마련

불교대학원(원장=목정복·불교학)은 지난 7일 암버서더호텔에서 제4대 원장 취임법회를 갖고 학교발전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불교대학원 설립이후 처음 행해졌으며 △권수자(도경)=5백60만원 △김희일(형민)=5백만원 △김영(홍학성회장)=3백만원 △문장식=6백만원 △효범스님=60만원의 기부와 무주상보시 3백3십만원을 합해 총 3천8백15만원이 모아졌다.

이는 1백주년 건립기념 '학술문화관 건립 기금'으로 납부했고 불교대학원장은 "동국대 학교는 스님들이 돈을 모아 세우고 동국을 발전시키려던 많은 돈이 필요하고 동국발전이 곧 불교발전이다"라고 모금의

### 서충련 출범식 13일 한양대 노천강당

서충련 출범식이 오는 13일 한양대학교 노천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각 학교별로 학내 출범식을 가진 후 지역 선전전을 수행하며 한양대로 집결하는 이번 출범식은 △기간 각 단위 학생회의 활동을 총화하고 향후 전망과 활동을 힘있게 공유 및 결의 △총련시 창조적인 학생중심의 기적으로 의장 추대 등의 다양한 형식을 통해 서충련으로의 단결과 총노선에 대한 이해를 대중적으로 승화 △95년의 총련을 통일구국투쟁으로 몰아낼 것을 당차게 결의 △민중총동맹 민중연대투쟁에 대해 목적의식적으로 알릴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출범식의 구체적인 일정은 살펴보면 각 단위의 문예창작물을 함께 공유할 문예한마당과 출범식 본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본마당에는 분단된 조국의 현대사를 뒤돌아 보며 95년의 과제를 힘차게 공유하고 결의를 높이는 자리, 학원 자주화투쟁을 모범단위 중심으로 총화, 학원자주화투쟁의 과제와 방향을 합의, 결의에 민중화해 선봉대의 구체적인 상을 제시, 더 나아가 95년 지지자 승리의 의지를 모아내는 자리, 의장을 대중적으로 응징하는 자리 등이 준비되어 있다.

또 출범식장을 장식할 선전마당으로 학자거리, 통일거리, 우리역사 바로 알기, 각 학교별 선전마당, 연대거리 등이 있을 예정이다.

## 등록금 협상 결렬 논의구조 정착에서 이견

지난 7일 오후 5시 교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던 제8차 등록금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협상에서는 7차 협상때 총학생회측이 요구한 △지정인건비의 재단부담 △건설기계정중 인상분 재단부담 △경주등록금 2%인상 철회 △학교 발전을 위한 논의구조 정착 등에 대한 학교측의 답변이 있었다.

이제 총학생회측은 "방증이나 지급이나 학교측의 모습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건설기계정중 부분에서 재단부담의 지속적 증가 △반당항방병원 건설 비용의 재원확보 방안 증대 △실험실습비 5%씩정 공익화 △지정인건비 재단부담 △하사행정 전변과 동국발전전에 대한 논의의 불확보 △하사행정의 공개성과 학생참여의 불보장 △신설학과문제 해결등의 최종 요구안을 학교측에 전달, 오는 17일까지 답변을 요구하며 협상자리를 정리했다.

총학생회는 "오는 17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학생들의 근본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간주, 이후 대응에 대한 책임은 모두 학교측에 있다"라고 밝혀 17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학교측과 학생측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백주년사업본부, 사업계획 마련 기금조성·교외협력체계 구축 추진

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본부장=한보광·선학)는 지난 10일 열린 교무위원회의에 사업추진기본계획안을 제출했다.

이 계획안은 동국발전 기금조성과 교외 협력체계의 구축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추진방향은 기금조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토대구축과 범동국인 참여의식 고취로 설정됐다.

사업본부 운영의 기본방침은 △사업 목표의 단순화 △사업추진의 분명화 △전 동국인의 참여와 △관리체계의 일원화이고 모금 대상별 역할사업으로 '동문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이 계획됐다.

또한 교무위원, 각 대학 학생처, 교무처, 총무처, 관리처, 각 대학원과의 학내 협력체계구축이 결정됐다.

이 계획은 하계 방학기간인 7, 8월과 임시기간인 12. 1, 2월을 제외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오는 28일 첫 실시된다.

학내 방문 차량, 장애자 차량, 외부강사 차량, 영업용 차량 등은 예외차량으로 시행 당일 정문에서 코끼리상까지 주차시키고 초과시엔 정문에서 박물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학내 방문 차량중 우체국, 은행의 공무 차량과 배달 차량은 학내 주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 재단법인 동우장학회 발족 총동서 설립...재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총동창회(회장=황명수·정치외교53졸)는 총동창회장 황명수, 상임부회장 유주형, 상근부회장 박익주와 동창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동우장학회의 현판식을 지난 11일 총동창회의 사무실에서 가졌다.

재단법인 동우장학회는 총동창회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작년 7월에 공인된 '하늘에 핀 녹두꽃'의 실경비를 제외한 수익금과 총동창회 장학기금 적립금을 모아 지난달 15일 법인등기를 하여 발족했다.

이후 재단법인 동우장학회는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통해 동문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장학기금 확충사업을 벌이게 된다.

'턱날한'고승 초청법회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정각원에서 턱날한 스님을 초청하여 고승법회를 실시한다.

턱날한 스님은 베트남 출신으로 베트남전정 발발후 '사회봉사를 위한 청년학교'와 '반한 불교대학'및 '정현종'을 창시하여 전쟁에 휩쓸린 베트남의 재거 및 평화운동에 힘썼다.

## 보리수 폭력과 명성

해주머의 사나이 타이슨이 교도소에서 석방되어 세계 복싱계에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삼년동안 교도소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의 몸이 된 타이슨은 다시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명성을 회복하고 있다.

그의 명성의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다. 주먹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명성과 부를 얻어 스타가 된 것이다. 스타는 범죄 행위를 해도 세상의 화제가 된다. 유명세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사법당국도 대중스타에게는 매우 관용적이다.

타이슨도 마찬가지다. 그가 교도소를 간 것은 폭력때문이었다. 폭력의 죄질에 비해 그는 빨리 출소했다. 주먹으로 얻은 명성 때문이었다. 주먹은 사각의 링속에서 휘둘러졌을 때 돈과 명성이 따르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주먹이 강하더라도 사각의 링을 떠나 휘두르게 되면 그것은 폭력이 되고 만다. 타이슨은 자신의 해주머를 과시하여 폭력을 자랑한 죄로 교도소에 갔다가 출감하였다. 주먹으로 사람을 때린 일은 이처럼 틀에 따라 범죄가 되고 돈과 명성을 얻는 일도 그 명암이 달라진다. 인간의 취미가운데 가장 원시적이고 비인간적 취미가 있다면 권투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사람 때리는 일을 즐겨워한다. 통쾌한 흥분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주먹으로 싸우는 일을 아무리 미화시켜도 그 내용은 사람을 때리는 일이 주제이다. 인간은 잔인한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동물적 야성(野性)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이다. 얼마전 모래시계가 방영될 때도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부분은 폭력장면이었다. 폭력을 미화시켰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반면 폭력체계를 그리워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폭력은 이처럼 인간의 동물적 야성(野性)을 자극시키는 역할을 한다. 중국인선들도 수행자에게 폭력을 자행한 일이있다. 그 대표적 선사(禪師)가 '활벽'이다. 활벽선사는 난폭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훗날 제자가 된 임제선사가 활벽의 근본 뜻을 물었을 때 활벽선사는 임제를 몽둥이로 후려 갈았다. 그러나 임제는 분노나 원망을 하지 않았다. 활벽선사 역시 임제선사가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었다. 몽둥이를 맞는 일이 고통스러웠지만 한편으로 즐거웠다.

그래서 활벽의 폭력은 단순한 폭력에 머무르지 않고 깨침을 열어주는 붓(佛)의 법어가 되었다. 그러나 폭력은 이광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개인이나 국가를 들을 것 없이 폭력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한다. 폭력이란 남에게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는 일만이 아니다. 분노와 증오, 거친 말도 일종의 폭력이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그런듯한 구실을 내세워 들들의 폭력이 정의를 짓밟는 경우가 있다.

'간다'의 말처럼 폭력은 약자의 무기이지만 비폭력은 참는 자의 무기이다.

김정휴  
불교신문사 사장

## 교무위원회 합동연수 교육 학교발전방안·교육환경개선 분임토의

총무처(처장=염준근·통계학)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교무위원 전원 및 각 병원장을 대상으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합동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연수중에는 학교발전방안과 교육환경개선을 주제로 분임토의가 이루어졌으며 21세기를 향한 대학 개혁의 방향에 대한 특강들이 있었다.

행정처리 자료집 배포

총무처(처장=염준근·통계학)는 '중앙행정부서 업무 및 처리기강'을 배포한 자료집을 다음주 각 과별로 배포한다.

이 자료집은 송석구총장의 민원과 행정처리에 대한 지침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복잡한 민원들을 개선하여 일 처리를 신속히 하

기 위해 실시했다.

이 자료집에는 학사행정처리 부서의 업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한 예로 학적과 업무 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성적처리는 △공시 3일 △인력 1일 △대체조각인 2일 △발송 1일로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김중진 총무과장은 "서비스를 철저히 해 민원업무를 개선하고 행정쇄신으로 학교와 학생이 힘모아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행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를 발전시켜 온 것은  
햄릿형의 고뇌가 아니라  
돈키호테형의 실천력이다.  
투르게네프(1818~1883)

# 어디 있는가? 이 시대의 돈키호테들은...

제3의 개혁을 추구하고있는 한화그룹과 함께  
세계로 도약할 진취적인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 신입사원 모집요강

모집분야	모집분	모집인원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	400명
2.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모집대상학과 전공과목서 학사,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1995년 8월 취득예정자 나. 군필 또는 군면제자 다. 1967. 1. 1 이후 출생자 (성사 및 장기복무전역 예정장교의 경우 1965. 1. 1 이후출생자) 라.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당소용양식) 1통 나.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통 (석사학위취득은 대학원성적증명서 포함) 다.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보호대상자에 한함) 1통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 기간 1995. 4. 11(화)~4. 18(화) 09:30~17:00 (토요일은 12:00까지, 일요일은 제외) 나. 접수처 ■ 그룹총무 및 접수처: 한화그룹사 서울시 중구 경교동 1번지 한화빌딩 28층 접수처(신남대 운영) *안내전화 729-1124, 1125, 1083, 4300 ■ 지방교부처(교부처 한함)	
6. 기타	가. 입사지원서는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작성하여 차후 기재사항이 취급일이 변경될 경우 합계(입사)를 취소할 나. 우편접수는 접수일인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취업보호대상자는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하며 관련법규에 위거 우대함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그룹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화그룹 인력관리위원회

모집분야	모집회사	모집학과	비고
화학	(주)한화, (주)한화정밀화학(주)	화학, 생명, 화학(약), 기계, 전자, 전기, 산업공학, 토목, 중국어	부역부종직원은 전공불문 전자, 산업공학은 동일 석사학위취득예정자는 병역특례가능
화학	(주)한화(주), (주)한화종합화학(주), (주)한화스피로(주), (주)한화포리(주), (주)한화(주), (주)한화(주)	화학, 생명, 화학, 기계, 전기	종합연구소는 석사(화학)가능/병역특례 취득예정자는 병역특례가능(화학)
기계	(주)한화(주), (주)한화자동차부품(주), (주)한화엔지니어링(주), (주)한화(주)	기계, 기계	전주, 함안지역 근무가능자 우대
금융	(주)한화증권(주), (주)한화생명(주), (주)한화투자증권(주)	생전, 생명, 인문, 이문, 전자, 화학, MBA및 경제, 경영, 통계학 석사	석사학위취득은 학력가능자 우대
유통	(주)한화유통, (주)한화(주), (주)한화(주)	생전, 생명, 영어, 불어, 기계, 전기, 전자, 건축, 토목, 농/축/수산, 식품, 섬유, 환경 도시/환경	영업부문의 전공불문 자랑근무 가능자 우대
기타	(주)한화(주)	전산	대천근무가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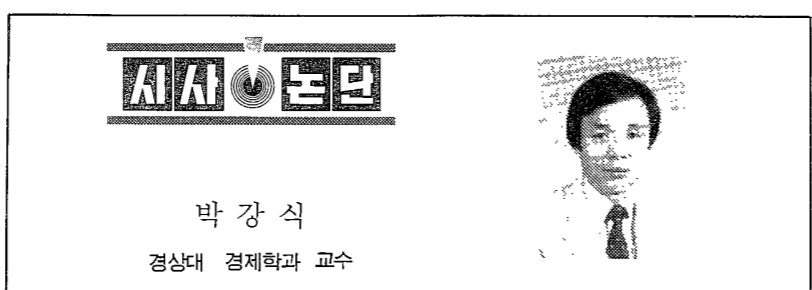
### 국제금융시장 동요 배경과 대응방향

# 환율 불안정... 금융기관 혁신 시급

금년 3월에 접어들면서부터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을 대변하는 달러화 및 엔화 및 마르크와 간의 환율(¥/\$, DM/\$)이 급락, 즉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 엔/달러는 3월말 1달러당 86.6엔에 달하여 한달전 대비 11.7%하락하였고 4월8일에는 83엔대에 진입하였으며 마르크/달러는 3월말 1달러당 1.373마르크에서 한달동안 6.3%나 내려갔다. 마르크화는 4월6~8일간 달러당 1.38마르크 선에서 요동칠질을 하고 있으나 엔화는 1달러당 80엔 선을 돌파하고 있다. 엔/달러의 구매력평가환율(명목환율X 미일 양국의 물가상승률비율)은 달러당 1백10엔임을 감안하면 '수과 엔고 시대 진입'으로 평가되고 있어 자본시장을 서둘러 개방해야 하는 우리나라에 몇가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두나라 통화간의 환율은 이론적으로 두 나라간의 물가상승률, 소득과 경상수지, 통화량증가를 및 이자율 등의 차이와 각 정부의 외환시장개입정도 등이 두 통화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오르고 내린다. 특히 이들 경제변수들에 대한 충격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그 여파를 예상하고 행동하는데 통신수단이 발달하여 그 효과는 초를 다투어 환율에 반영된다.

최근의 달러화 가치 폭락(엔화 가치의 폭등)은 달러화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장단기 기본요인들의 변동에 기인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 무역수지흑자가 30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특히 90년 통독 이후 92년까지는 자금수요급증으로 이자율이 미국의 금리를 상회하였고 앞으로도 물가상승압력 때문에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로 마르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한편 미국은 94년도에 3.9%의 고율성장을 기록, 물가상승압력도 높아진데다 재정적자도 크게늘어 무역수지적자가 93년 1천3백26억 달러에서 94년엔 1천5백



박강식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57억달러로 증가하였다. 반면 일본은 91년 이후 경기침체로 총수입 특히 대미수입이 감소한 반면 수출이 증가하여 무역수지흑자가 상기 기간동안 1천4백16억달러에서 1천4백58억달러로 늘었다. 세계무역의 2/3 이상이 달러로 결제된 점으로 미루어 적어도 '미국무역적자(일본의 무역흑자-일본의 대미무역흑자)X 2/3'만큼 달러의 초과공급이 상존하고 있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95년 3월 들어서는 달러화공급초과 현상을 악화시키는 경제적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미국정부는 균형예산을 위한 헌법 개정에 실패했고 94년말부터 촉발된 멕시코 경제의 붕괴는 달러화의 초과공급을 부채질 하였다. 일본에서는 95년 1월의 대지진으로 막대한 엔화자금이 필요한데다 3월 결산법인들이 달러화자산을 대거 처분하였다. 특히 95년 2월 영국의 '베어링은행' 파산은 안정성이 높은 엔화나 마르크화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켰다. 이에따라 주요 통화들간의 환율이 동요하는 틈을 타고 한번에 5천여달러를 동원할 수 있는 소위 '헷지펀드' 등 투기성 자금의 이동이 환율변화를 가속화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월들어서도 달러화 가치의 폭락이 계속되자 독일의 '분데스뱅크'가 재할인율을 0.5%인하하였고 4월 6~7일 미국 연방은행과 동경은행이 10~20억달러 정도를 매입하였

으나 중앙은행들의 시장개입능력에 대한 한계성인을 드러냈을 뿐, 달러하락을 반전시키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번에는 싱가포르 대만 등 동남아 중앙은행까지도 엔화 매입에 나섬으로써 달러저(엔고)를 부추기게 되었다.

앞으로도 미 일 등 3개국을 국별로 이해가 달라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독일은 임금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실업해소를 위해 고금리 유지가 불가피하다. 미국은 4월6일 하원에서 '감세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4~5년내에는 재정적자의 해소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특히 94년중 7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여 앞으로는 이를 인하시킬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정부는 달러하락을 무역수지적자해소의 기회로 삼고 있다. 다만 일본은 엔고로 수출산업에 타격이 커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지만 일본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의 재할인율은 이미 1.75%로 최저수준에 있어 더 이상의 인하가 어렵고, 일본국민의 일본제품에 대한 선호도나 내수진작정책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축통화들의 환율이 급변하였음에도 원/달러환율은 3월말달중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와 외국자금의 유출(약 67억달러)등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환율안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1.9%하락(원화의 절상)하였고 원/엔화의 환율은 61상승(원화의 절하)에 그쳤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그만큼 굳게 닫혀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UR'이행계획서에 자본시장개방을 약속하고 그것을 이행중에 있는데 OECD에 가입될 경우 개방은 훨씬 앞당겨질 것이다. 그때에는 최근과 같은 정도의 주요통화들의 환율변화는 현 재보다 훨씬 큰 폭으로 그리고 신속히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국제통화체제가 현재의 달러중심에서 달러-엔-마르크 3주체제로 개편됨으로써 주요 통화들간의 환율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게 됨으로 우리정부는 자금처럼 환율을 쉽게 조정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국제투자자들의 투기의 대상이되어 하루이침에 유린당할 위험도 그만큼 커지게 될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율변화와 관련된 거시변수들의 안정화 및 국제수준화가 시급하다. 국제무역은 과다소비-무역적자증가-달러화 가치폭락을 자초한 미국과, 지나치게 높은 저축성향과 폐쇄적인 시장-엔고-경기침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일본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 물가의 안정은 필수적인 것이고 금리는 국제금리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독립하여 일관성 있는 통화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는 '3대나후 산업'의 하나인 금융기관들이다. 금융기관들은 우선 국내에서의 자금의 조달과 운영면에서의 혁신은 물론 고도로 발달한 선진거래 등 국제금융기법을 서둘러 익힘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길러나가야 할 것이다.

## 사설

### 창간 45주년의 새로운 각오

4월15일은 본지가 창간된지 만 45주년을 맞는 날이다. 그리고 이날은 본지의 지명 1천1백72호를 기록한다.

해방후의 한국대학사에서 이만한 연륜과 지평을 가진 대학신문이 과연 몇이나 되었는가. 반세기의 역사를 눈앞에 두고 회고해 보면 뿌듯한 자긍심이 솟아 나지 않을 수 없다.

1950년 6.25의 비극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본지는 진리와 자유, 학문과 지식의 드높은 가치를 들고 첫호를 발행하였다. 그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대신문은 도전과 용전, 고난과 시련의 한국현대사를 체험해 오면서 대학이 서야할 역사적 중심을 잃지 않도록 정명입론(正名立論)의 자세를 굳건히 지켜 왔다.

대학인의 정의를 사회로 확산시키는데 앞장섰는가 하면, 독재와 불의의 날카로운 필봉으로 저항해 왔다. 동대신문의 이러한 비판정신은 파사현정의 불교정신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동대가 언제나 사회정의의 편에서 학문과 지식을 닦을 수 있도록 하는 구심점을 이루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동대신문은 시대와 더불어 고난을 함께하면서 더 안으로는 뜨거운 정열로 학풍의 조성, 대학문화의 창달에 헌신의 힘을 다하였다.

동국사(東國史)를 남남이 기록한다는 점에서 학내보도의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며, 교수, 학생, 직원, 동문들의 '열린 광장'이 되도록 학술, 문화, 교육의 차원에서 지면을 확대하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았다. 동대신문이 오늘날 3만여 고정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지면 구성의 이러한 특징 때문이 아닌가 자부해 본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창간 45주년의 의미가 이러한 자부로운 끝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안다. 동대신문도 한 때는 '학생독재'라는 혹독한 비판을 면치 못했으며 문제를 다루는 시각이나 편집방향에 공경하지 못하고 지극히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수없이 받은 경험이 있다. 근래의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한 시대적 상황의 반영이었음을 독자들에게 고백하면서, 대학신문은 '대학신문'이 아니라 '학생'의 계기로 삼고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새로운 결의이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학도 이제는 '질 좋은 상품'의 배출을 이 사회에서 요구받고 있다. 교육자체가 상품화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변화 속에서 대학이 살아 남으려면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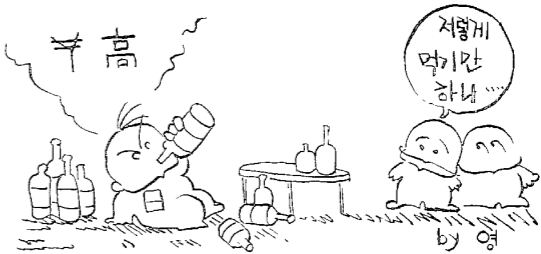
그러기 때문에 학문상의 구조조정은 물론 시설의 확충, 질 높은 교육은 필수적이다.

동대신문은 동대자신이 담당한 있는 이러한 개혁과제를 풀어나가는데 학내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명확함의 조성은 물론 모든 구성원들이 대학인다운 자질과 품성을 갖도록 하는데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도 다짐한다.

## 통속만평

이영일



4차 단계교섭은 오늘(12일) 경주 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노조에서 이미 제시된 (안)에 관해 학교측의 연구, 검토된 자료제시로 서로의 '의견차이'를 만들어서 좁혀 나가길 바란다. (곽주영 기자)

### ◇직원노조 단체교섭 어디까지 왔나

## '직원 외국어교육비 지원'만 합의 학교측 준비부족으로 뚜렷한 결과없어

'95년 직원노조(위원장=김윤길·1백주년사업본부) 임금 및 단체교섭이 3차례 진행됐으나 학교-노조 양측의 기본입장만 제시된 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조에서는 이번 단체교섭의 주요내용으로 임금협정부문에선 △기본급 인상 △각종 수당 조정, 단체협약부분에선 △명예퇴직 수당 지급 기준 변경 △사무기능직 인사제도 개선 △직원 외국어교육 후원을 학교측에 제시했다. 이에 학교측은 3차례 진행된 단체교섭에서 직원 외국어 교육비 일

부를 학기당 지원하는 것을 약속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검토·연구하겠다고 밝혔다.

### 정점 없는 협상

지난 24일 열린 2차 단체교섭에선 임금 인상률이 노조12%, 학교5%(내년15%)로 제시됐고, 예-결산을 학교가 공개하기로 하되, 협약사항에서는 공개부분은 제외하기로 했다. 그 외 단체협약(안)으로 명예퇴직 제도, 사무기능직 인사제도 개선(안) 등이 논의됐으나 학교측의 준

비미비로 기본입장만 공유됐다. 각종 수당 조정 및 사무기능직 인사제도 개선(안) 등에 대해 학교측은 "검토중이다.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으니 다음 교섭에서 연구하자"며 2차교섭때 논의된 대부분의 사안을 3차교섭으로 미루었다. 그러나 3차교섭 역시 눈에 띄는 쟁점사안 없이 매듭을 지었다.

###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

이번 단체교섭의 난점사안으로 제기된 내용이 꼽힌다. 첫째, 임금 인상률부분을 거론할 수 있다. 올해 임금인상률로 노조에서는 12%를 제시하였고, 학교측은 대학종합평가와 임금 예산이 결정되어 수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5%, 내년 15%로 하려 평균 10% 인상(안)을 밝혔다. 이에 노조측은 임금수준과 대학수준을 비교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내년도 인사부분을 논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사항임을 지적했다. 둘째, 각종수당 조정부분이다. 적용기준이 모호한 체로 관행에 의해 지급된 수당에 대해 노조는 명분이 정확한 수당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기근속수당 조정과 효도수당 신설이 학교측의 적극 검토를 약속받았지만, 그 책임수당이냐 특수근무수당, 자녀교육수당 등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시하기로 학교측이 밝혀 계속적인 '연구, 검토' 과정에 남겨졌다.

셋째, 사무기능직 인사제도 개선(안)이다. 크게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분류된 본교 직종중에서 기능직에 포함될 사무기능직은 담당업무, 자격, 학력에 관계없이 전원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무기능직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꾸준한 요구가 제기되어 왔고 이에 그동안 학교 당국과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서 여러 차례 논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결방안 없이 5년여 동안 유보되어 왔으며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문제로 남아있었다.

사무기능직 인사제도 문제는 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새롭고 발전적인 인사정책이 수립될 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어 지된다.

### 해결할 논의의 기대하며

4차 단계교섭은 오늘(12일) 경주 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노조에서 이미 제시된 (안)에 관해 학교측의 연구, 검토된 자료제시로 서로의 '의견차이'를 만들어서 좁혀 나가길 바란다. (곽주영 기자)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편소리 배우는 X세대, 그게 나야!"  
"커피향기는 남자라구요"  
"영어, 일하는 기본 / 중국어에 도전중이라구요"  
"트롯에서 합창까지 꼭 배우고 있구요"  
"성공하게 아니고 결단력이 있는거야!"

## 十人十色

## 개성이 숨쉬는 열린 일터 - 삼성입니다.

캠퍼스의 봄에는 개성의 꽃이 피어납니다. 칸트를 꿈꾸며 인생과 학문의 본질에 대해 사색하는 학우도 있고, 스펀지볼을 뛰어 넘기 위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학우도 있습니다. 또, 히포크라테스의 후예답게 仁術을 펼치며 봉사활동을 하는 학우도 있지요. 학창시절을 공부에만 매달려 있기에 아깝다고 생각하는 학우도 있고 그 반대인 학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젊음은 저 마다의 개성이 피어나는 시간이니가요. 삼성은 젊음의 개성을 존중합니다. 획일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개성, 유연하고 입체적인 사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나갈 자신감 있는 젊음 - 삼성이 만나고 싶은 젊음의 모습입니다.

삼성엔 개성이 살아있는 젊음, 유연하고 입체적인 사고로 자신의 꿈을 실현해나갈 적극적인 젊음과 만나고 싶습니다.





◇ '김대중 죽이기'로 본 지식인 집단·지역감정 그리고 언론

양비론·황색저널리즘의 언론 냉철히 비판  
보신주의·기회주의로 일관한 지식인 치부 드러내  
지역감정... 권력기반 '장기집권등 정치권 부산물'

소리로 강하게 '아니다'라고 고개를 저고 있다. 우리 사회의 지식인의 범주는 크게 대학교수, 언론인 등을 들고 있다. 우리 현대사에 있어 지식인이라 분류되는 대학교수나 언론인들은 기회주의, 보신주의, 소영웅주의로 굴절을 하면서 질곡을 거듭해 왔다.

저자의 주장은 그러한 첫걸음으로 지식인 집단의 치부를 까발리는 일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인과 한국정치의 부산물인 지역감정

한국사회에서 지역감정이라는 악령이 출현한 것은 61년에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취약한 권력의 기반을 다지고 장기집권을 추진하려는 목적에서 지역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며, 지역감정이 노골적으로 자행된 것은 71년 대통령선거에서 '경상도 대통령령'을 내세우면서부터이다.

한국의 지식인 집단은 한국사회의 발전의 전근대적 요소인 동시에 최대장애물인 '지역감정'을 타파하고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정치권력의 '알집이 노릇'이나 '나팔수 노릇'을 하면서 지역감정을 즐긴 집단이다.

저자는 무덤이 구원을 때도는 죽은 잠귀를 곳마당에 불러내어 잘잘못을 따져 시시비비를 가리듯이, 지식인들을 공론의 장으로 불러내어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진실을 호도하고 편향된 논조로, 노란색 안경을 쓰고서 하얀색상을 노란색상이라고 강변하던 지식인들의 치부를 주저할 없이 비판하고 있다.

저자의 '김대중 죽이기'는 한국의 지식인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비판정신'을 재생시켰다고 평가하면 너무 자의적 평가일까? 아니다. 저자는 우리의 잃어가는 잃어 버린 '비판의 신화 (Legend of criticism)'라

는 한편의 전설을 재록·복원시킨 구전문학자나 민속학자이다.

한국의 언론의 사도들은 물러가라. 정론의 말을 쓴 황색 저널리즘 그리고 양비론

언론은 한 사회의 공기(公器)이며, 몇몇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는 몇몇사람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언론의 사명은 정론(正論)을 생명으로 한다. 하지만, 한국의 언론사들은 공론과 정론은 한강물에 띄어 보내버리고 사실과 진실을 가장한 거짓된 사언(私言)이나 허언(虛言)들로 국민을 호도하고 우롱하고 있다. 또한, 양비론이라는 기회주의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황색저널리즘으로 일관하는 '김대중 죽이기'에서 저자가 말하는 대표적인 황색저널리즘으로는 조소일보를 들고 있다. 재벌 언론사들의 탄생부터가 비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견제하고 있는 것은 정론이라는 가면을 쓰고, 정도(正統)라는 분철을 하고 있지만 그 정체(正體)를 바로 보지 못하고 속고 있는 독자와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속들만 살려는가?

토론회의 활성화-한국지식인 사회의 열렬한 속세 강준만교수의 김대중 죽이기

대한 지식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저자의 '김대중 죽이기'는 시종일관 한국의 지식인 집단이 양비론의 허물을 벗어 던져 버리고 정론의 길을 가라라, 바람에 서있는 한국지식인 사회를 구하려는 절박한 의침인 동시에 치열한 몸부림이다. 또한,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지역감정'이라는 악령을 공론의 장에 끌어내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시각으로 우리 지식인집단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 지역감정의 꾀를 극복하고 한국의 정치문화, 언론, 지식인 문화를 한층 높여려는 저자의 몸부림이기도 하다.

한국의 지식인 집단에는 진정한 토론이 없고 매아리가 없다.



김대중 죽이기저자 강준만 교수

대화와 토론보다는 일방적인 자기주장만이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목소리와 다르게 들리는 주장을 하면 색안경을 끼고서 토론과 대화를 뒤로한 채, 그 이단적 주장자를 죽이려 들기까지 한다. 외침에 매아리가 없다. 설령, 매아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매아리는 가성(假聲)의 매아리일 뿐이다.

저자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지식인 집단의 일부에서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비판보다는 옹졸한 자기변명의 논리를 그들이 그동안 행한 굴절된 행보와 행태를 합리화하고 있다. 이는 지식인의 참다운 자세가 아니다. 실명이 거명된 지식인들은 저자의 비판을 경계하게 받아들이고, 다시는 편향되고 일그러진 글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역설적이지만, 그동안 지식인들이 양심적인 정론의 길을 걸어왔다면 강준만이라는 언론화 스타(가) 탄생할 리 없었으며, '김대중 죽이기'라는 책도 출판될 리 없었으며, 강준만이라는 사내에 의해 지식인 집단이 '수술대' 위의 해부대상이 될리도 없었다. 이는 한국사회의 비극이다. 그 비극은 비극을 초래한 지식인 집단이 극복할 수 밖에 없음을 또한 저자는 강조한다. 저자의 '김대중 죽이기'는 지식인 집단과 언론을 두 축으로 하여 지역감정과 양비론의 병폐, 정치현상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다.

강준만교수의 '김대중 죽이기'라는 책을 '현대에서 보기 드문 정치 교과서이며 민족화합의 지침서'라고 평가하는 양심적인 언론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철 호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유리장벽**

지금 중국의 일반 학우는 어디에... 경주캠퍼스 원효관 중정은 학우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정정한 마이크 소리로 가득 채워지지만 등투전 진대회를 하기에는 빈자리가 많다. "일만학우 단결하는 플래카드 밑에 모인 인원이 이것뿐이니 참 썰렁하네"

대회장으로 들어오는 한 학우가 왜소한 규모에 한마디 던진다. "대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소수의 진행원들이 주체가 돼 썰렁한 원효관 중정에 비허건물안 휴게실은 강의의 마친 학우들이 복직대는 바쁜 모습을 보인다."

같은날 시청각실은 경주캠퍼스 총대의원회 출범식이 끝나고 예정된 정기총회가 대의원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도전하는 제2대 총대의원회란 문구를 배경으로 "대의원 여러분은 학생들의 대표입니다. 여러분의 확실한 참여기반위에 총대의원회가 설수있습니다"며 의장은 한해 사업의 각오를 밝힌다. 하지만 학생들의 대표인 대의원들과

저 참여부족으로 총회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아쉬움이 남는 모양이다. 한창 각 단대들은 체육대회 준비로 바쁘다. 많은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필요하고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리로서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한 학우는 "우리들의 호응과 참여는 체육대회는 그 취지부터가 체육대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라고 말한다.

지금 많은 학생회와 여러기구의 사업이 진행된다. "당장 등락금 다했다고 끝인가요. 장기적 안목으로 지속적인 투쟁이 중요하겠죠"라는 학우들의 자각의 목소리도 들리고 "더욱더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방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학생회의 각오도 들린다.

원효관 건물안에서 굳게 닫힌 유리창을 통해 소리로 들리지 않는 등투대회장의 모습을 바라보는 한 학우. 그와 대회장 사이의 유리장벽은 깨질 것인가. (신형섭 기자)

**사학단신**

**영석고 특별감사 결과 발표 서명교사, 반발...성명서 배포**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3월11일 접수한 영석고 재직교사 28명의 진정서로 인해 진행했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일 발표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95년1월 교직원 32명에 대한 호봉승급 및 급여인상분 2백93만5천8백원을 인출, 수령자의 수령인을 받은후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지난 2월15일 졸업식장에서 서울 시흥동 소재 해명양로원에 전달 △94년12월18일 시간의 근무수당을 지급할 시 교직원 불교신도회에서 교직원 30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에서 15만원의 모금 4백45만원원을 모금, 교내 법당에 모금함을 구입하는데 사용 △91년9월부터 '95년2월까지 연동값, 종강, 종강비 명목으로 매월 교사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씩 총2천1백99만원원을 모금하여 각종 불교행사에 사용함 △94년도에는 학생 1인당 1천5백원에서 3천원, 교사 1인당 5천원에서 1만원씩 총4백74만1천5백원을 모금하여 적법한 회계처리가 서울 시흥동 소재 해명양로원의 3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 △94년 졸업생 1백84명으로부터 학생 1인당 1만 2천원씩 총2백2십만8천원을 징수하여 피아노구입 △93년6월부터 현재까지 학교매점 임대수입금 1천4백40만원원을 학교회계수입조치않고 법인회계에 수입조치하여 법인운영비로 집행 △학업성

적평가시 결소점수중 대도점수에 수업료 납부실적 2점 배정하여 평가활동의 사실이 밝혀졌으며 "영석고 법인이사회는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4월1일 후임교장으로 전 의정부여고 김중학교 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대해 영석고 교사 28명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대대표교사 5인에 대한 부당징계철회 △관선이사 파견 △도교육청의 감사결과발표는 교사와 학부모를 기만한 죄대 등 5가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 8일 있었던 영석고 전체교사와의 면담자리에서 "징계철회요구는 사립학교법상 이사회에서 용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에서는 방법 없다" "관선 이사파견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부진한 결과에 대해서 "안채란교장의 부인임으로 발표된 것 밖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석고 교사 28명은 "5개 항목이 이뤄질때까지 영석고 발전을 위해 분골쇄신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영석고 학부모 30여명이 본교 교수인 김주필 (용문생물학)영석고 징계위원장을 만나기위해 지난 3일과 7일 두차례 본교를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부)

◇ 경주 산업폐기물 처리장 건설 루머가 문제인가

관광유산손실·교통체증 야기해

국민관광단지와 동해리조트가 들어서게 된다. 이런 이유로 경상북도 당국인장은 업자들의 사업계획서를 "적합하지 않다"고 반려했으나 환경부는 "반적·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 업자들의 사업계획서 반려 조치를 취소하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환경부의 이와같은 조치는 현지 실정을 전혀 생각하지않은 처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3월20일, '산업폐기물 처리장 설치장 반대 범시민 결의대회'가 양북, 양남, 감포읍 시민 7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 달 20일 경주역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경부고속전철 경주통과와 결마장 유치 문제로 집회의도와는 다른 목소

리가 높아 혼선을 빚기도 했다. 지역주민들은 '산업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발족, 그동안의 눈물겨운 반대투쟁을 이끌어 왔다.

시민들이 내세우는 폐기를 처리장 건설 반대 이유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장소가 신생대 단층지대로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고 월성원자력 발전소와 공업단지 및 인구 밀집지역을 끼고 있다.

둘째, 대륙성기후와 해양성기후가 접하는 곳으로 폭우와 집중호우로 토산산 계곡의 퇴적물이 흘러내려 폐기를 침출수는 물론 월성원자력 발전소까지 오염될 경우 큰 위험이 야기된다.

경주 불길 '산업폐기물 처리장' 건설 문제는 '9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행정당국과 주민사이의 마찰로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한 상태이다. 신라 천년의 역사와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우리나라 최고 관광도시로 손꼽히는 경주는 '94년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더욱 많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주력해 왔다. 이번엔 '산업폐기물 처리장' 건설된다면 우리나라 관광유산의 손실은 물론 경주 시민의 생활과 교통체증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업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참가하는 (주)중우환경과 (주)지산산업의 2개 업체는 양북면 봉길리 산 265번지, 208-1번지에 각각 10만5천5백56평, 1만4천2백49평 규모로 처리장 건설허가신청서를 경상북도의 환경부에 제출하 바 있다. 그러나 세계 10대 역사도시인 경주유네스코 관광특구로 지정해 해안쪽은 감포대단위

4·10 혁명 기력광고

1950-1995 창간 45 돌

오늘도 참지 않겠습니다.

1960년 4월 어느날  
코흘리개 국민학생 막내동생도  
붓감장사 하시던 어머니도  
막노동판 울 아버지도  
광화문 네거리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가리고 입을 틀어막고  
그래서 이땅을 삼키려는  
'더러움'을  
더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아서는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1995년을 사는  
이나라의  
'청년'역시  
그 '더러움'앞에서  
참지 않겠습니다.  
자유·민주·자주통일은  
바로  
'청년학생'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 언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서/울/지/역

학술세미나초록 '물과 건강 어떤 관계인가'

육각수 고리구조 물...생체분자가 좋아해  
암·당뇨 질병원인은세포내물구조 파괴

물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위하여 질 대로 없어서는 안되는 물질이다. 물이 없으면 생명은 탄생하는 일도 없고, 물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존속할 가능성도 없다. 산업사회의 진전으로 공해가 발생하고 그 영향으로 물의 상태가 악화되는 일은 인간사회의 기반을 허무는 중대한 사태이다. 그러면 물과 생명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물이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일반적으로 건강과 장수의 물이란 6각수를 많이 포함한 물로서 첫째, 가능한한 차가운 물 또는 온 물이어야 하며, 특정한 환경에서 자기처리된 물, 셋째, 물의 구조화를 할 수 있는 많은 이온들을 가진 물 등이다. 그러므로 6각수가 물에 좋은 이유는 물분자가 6개의 프리 모양으로 연결된 상태가 자연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이다. 생체분자가 좋아하는 물의 구조가 6각수이며 암환부에 많이 존재하는 것이 5각수이고, 노화한 몸속의 6각수가 일부 잃어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학의 한계(암, 당뇨, 에이즈 등의 증가, 약의 부작용)에 도달한 오늘날 의학은 몸 전체에 불가사의한 역할을 하는 물을 주목하며 연구

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건강에 좋고 질병을 고치는 6각수를 마셔야 하고 10년후에는 확실히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할 것이다. 물은 화학적으로는 H<sub>2</sub>O로 표시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결과 액체의 물은 H<sub>2</sub>O가 아니고 물분자들이 서로 결합된 (H<sub>2</sub>O)<sub>n</sub>로 특정구조를 평균적으로 가지고 행동한다고 할 수 있다. 액체인 물속에는 5각형의 고리모양의 구조와 6각형 고리모양의 구조가 기본단위이고, 한 구조에서 다른 구조로 아주 짧은 시간(10<sup>-12</sup>초)에 협동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구조들을 가정하면 물의 여러 이상성을 설명할 수 있다. 6각형 고리모양의 구조라고 말하면 모두 눈의 결정이나 얼음의 6각형 꼴을 상상할 것이다. 그러나 눈의 결정이나 얼음의 6각형 꼴은 액체속의 6각형 고리 구조라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액체 물분자의 6각형 고리구조는 계속 변화하여 형성·파괴를 반복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들의 수명은 1천억분의 1초정도로서 물속에서 단일한 6각형 고리를 고집하여 내어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물 전체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10°C에서는 3~4%, 0°C에서는 10%, 과냉각상태의 -30~-40°C에서는 거의 대부분 6각형 고리의 구조를 하고 있다. 눈 결정의 6각형은 현미경으로도 볼 수 있으며 얼음의 구조도 X선회절 실험으로 엄밀히 찾을 수 있다. 인체의 60~80%가 물로 되어있고 혈액 성분에서 90% 이상이 물이다. 생체중의 물의 구조는 물내부(Bulk)의 물과는 달리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반드시 생체분자가 좋아하는 물의 구조가 있을 것이다. 생체분자에 대한 Alanine Dipeptide에 수화되는 물의 62%가 6각형 고리, 24%가 5각형 고리이고, 14%가 기타 구조이다. 그러므로 6각형 고리구조의 물은 생체분자가 좋아하는 물이다.



◇자연과학연구소(소장=성용길·화학)는 지난 7일 동국대(L301)에서 한국과학회 교수 전문학사초청 '물과 건강'에 대한 강연을 개최했다.

파괴된 공동원인에 기인한다. 이것이 물 환경설이다. '싱싱하다' '물방울같이'는 젊고 활기차다는 것을 표현하며 '시들다'는 사람이 원숙한 경우를 나타낸다. 영어에도 'In Smooth Water' 'Water of Life' 등의 표현은 생명이 물속에 있음을 시사한다. 경험적으로 볼 때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 수분함량이 감소한다. 따라서 노화란 '유기체의 각기관, 조직 세포나 분자레벨(Level)의 기능저하'의 관점이다. 이렇게 볼 때 노화는 체내의 구조화된 물이 체내로 빠져나가 구조화가 적은 무질서한 물의 양이 증가하는 것이다. 사실상 노화현상과 수반하여 구조형성이 인인 칼슘이온등이 체외로 배출됨으로써 뼈가 약해지고 치아가 약해지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물과 단백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며, 대형계산기(CRAY)실험으로 정상 단백질속 물이 주로 6각수 구조를 형성하며 이상(불안) 단백질속 물은 6각수 구조가 줄어드는 대신 5각수 구조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현재 사람 100인종 한사람 끝로 해모달로부터 단백질은 구성하는 140개의 아미노산중 한개가 다른 아미노산으로 치환되어 생기는 변형의 원인 규명도 연구중이며, 단백질이 많은 아미노산의 배열에 의해 형성되는 사실로부터 발암의 원인과 물, 변형의 원인과 물 및 먹는 화장수 개발등의 응용에 연구가 한창 진행중이다. (정리:사회부)

깃발만필

자수성가



윤범모

흔히 들는 말이다. 자수성가. 사전식의 정의는 이렇다. 스스로의 힘으로 어엿한 살림을 이룩하는 일. 자수성가. 참으로 멋 있는 말이다. 온갖 역경을 딛고 스스로 우뚝 서는 일. 박수를 쳐 줄만한 일이지 않은가.

자수성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참으로 세상은 흥흥해졌다. 외국유학을 간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런 한 술 떠서서 대학교수직 아들의 부친살해라는 보도까지 나오게 되었다. 오늘도 압구정동은 휘황찬란하다. 심야의 거리가 마치 미국의 어느 거리와 같다. 그저 소비만이 마력이다. 나 혼자만 즐기면서 질살면은 그 뿐이다. 오랜만에 시골친구를 만났다. 우여곡절 끝에 조그마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성공한 중소기업의 사장치고는 결손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과거는 참으로 일찍이 들을여 있었다. 고등학교까지 제대로 다니질 못했다. 문재이었다. 정학, 퇴학 같은 단어는 그의 애용어였다. 뒷골목에서 살았다. 가난함의 절망은 뒷골목에서나 짧은 열기를 벗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살다보면 인생의 전환점도 있게 된다. 성실히 살았다. 사회의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했다. 물론 고통의 나날이었다. 그 친구의 옛날 이야기를 듣다보면 무슨 인간살리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얼마 전 우리사회에서 무슨 재해가 일어났을 때 억대원의 거금을 회수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도 뒤에서 조종하.

내 시골친구는 말했다. 우리들의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다. 내가 그를 두고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가 혼난 일이 있다. 세상에 자수성가가 어디 있는냐는 말이었다. 물론 당사자야 고생하면서 노력했겠지만 세상에 주위의 도움 없이 일가를 이룰 수 있는 일은 없다는 논리였다. 주위의 협조는 커녕 남의 후주머니에 들어 갈 것을 내가 챙기게 된다 보니 부자도 된 것이 아니라 는 얘기였다.

자수성가. 지난 세월에는 미덕의 상징과 같은 말이었다. 그러면서도 계속 효용성이 있는 말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하도 흥흥하다 보니 그 의미가 새로워지기도 한다. 도대체 위정자부터도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되는 세상이니 학생을 보고 누굴 닮으라고 가르칠 것인가. 자기만 아는 세상. 진정한 의미의 자수성가는 없다. 세상은 더불어 사는 것이다.

경원대학교수 미술평론가

학술단신

'불교신행 그문제의 방향'

부처님오신날 기념 세미나

불교문화연구원(원장=권기중·불교학)은 다음달 4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교세미나를 개최한다.

'불교신행, 그 문제와 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동국대(L401)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되며 주요 발표제목 및 발표자는 △한·불교의 신행형태=강진기(전북대 철학과 교수) △경전에 나타난 불교신행=재인환(동국대 철학과 교수) △세월의 새로운 해석과 현실화=북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불교신행의 새 방향=정병호(동국대 교수)이고 최현각(동국대 철학과 교수) △원혜스님(조계종 교육원장) △서운길(동국대 불교대학장) △홍사성(불교 TV제작국장) △박광서(서경대 불리학과 교수)씨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발하는 관측... 당신을 말 없이 사랑해... 아마도 그런 심정을 나타내는 별은 처녀자리 "스피카"일 것이다. 발하는 동쪽에서 빛을 쬐구는 그녀는 마치 그리움의 눈물을 쬐구는 것일다.

언젠가 사랑을 느껴본 당신이라면 부디 동쪽하늘에서 떠오르는 별... 스피카(spica)를 찾아보길 바란다. 저녁 9시에 떠서 자정이 되면 남쪽하늘에, 그렇게 찾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서울이라 아마도 그 별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기에...

이렇게 별들을 움직이는 건 지구의 자전이며 공전이다. 별들이 북극점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의 일주운동을 하는 건 지구의 자전에 기인한 것이고, 계절마다 별자리가 바뀌는 이유는 지구의 공전 탓이다. 겨울의 상징이던 웅장한 오리온자리가 사자의 등장으로 서쪽하늘로 도망가 버리고 그 뒤를 이어 생명의 상징인 처녀자리 그리고 농사의 상징인 목동이 등장한다. 윈손에 북두칠성이라는 정기를 쥐고 나타난 목동(arcurus)은 우리에게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별이기도 하다. 그 옛날 조상들은 이 별의 등장으로 농사의 시기를 알았으며 스피카를 보면서 겨울내내 움츠린 가슴을 열었다. 과연 별자리는 그 별들의 자연적 현상을 전설로서 엮어 만든 역사책의 주인공들이었다. 사실, 딱딱한 지표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에 요즘도 우리 별자리자들은 그 별자리들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전설과

과학에세이 -별자리 관찰방법

적도의식 마운트, 이동하는 별 추적 관측기구

렌즈 북극성주위 고정 B셔터...사진촬영가능

함께 말이다. 혹, 자신의 곁에 아름다운 별들을 그려보고자 하는 분이라면 자연과학 연구회에서 'skyglobe'라는 프로그램은 무료로 카피해 주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지구의 자전주기가 24시간이므로 자전에서 기인해서 일어나는 별들의 일주운동의 주기 역시 24시간이 될 것이다. 즉, 1시간에 15도씩 움직이게 되는데, 별들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사람들에겐 이것이 가장 큰 골치거리가 된다. 망원경으로 별을 포착해도 별들이 너무도 빨리 움직여 시야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별들을 추적하면서 관찰할 기구가 필요한데 그 기구가 바로 적도의식 마운트이다. 일주운동의 중심이 지구의 자전축이기에 그 자전축과 일치하는 북극점을 찾아 망원경을 별들이 들어가는 속도만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준다. 값이 너무도 비싼 탓에 아마추어에게는 부담이 되는 장치이지만 북극점을 중심으로 망원경을 돌려주는 원리를 생각한다면 적도의식 마운트의 제작은 그리 어렵지않

은 않을 것이다. 대학생활의 지그마만 보람으로 남을지도 모를일이다. 흔하할 망원경을 구입할때 배울을 중지하는데 그렇게 배울이 높은 것이 좋으면 현미경을 사라고 말하고 싶다. 흔하할 논문 사람들이 시력이 좋다고 한다. 우습게도 그런 정말 사실이다. 눈이 클수록 동공의 크기가 크므로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망원경에서 렌즈의 구경이 크면 클 수록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배울을 높혀도 상이 잘 흐려지지 않는다. 현미경 아래에 전구를 설치하는 이유도 알고 보면 배울을 높이면 상이 어두워 지고 흐려지므로 필요한 빛을 전구로 더 보충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천체에서는 그 별에 가서 별의 밝기를 조절할 수 없기에, 하는 수 없이 많은 빛을 모으기 위한 구경이 큰 망원경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상점에서 배울만 따지고 망원경을 고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구경이 크면 그건으로 좋은 것이다. 천문대를 세

울때 그 자리를 우선 엄청나게 많은 콘크리트를 깔아 망원경과 일체시킨다고 한다.

즉, 무거울수록 상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므로 무거운 다리를 만드는 것이다. 망원경 제작이나 구입시 망원경의 다리 역시 아주 중요한 것이 된다. 무겁고 지면과 안정적으로 밀착이 될 수록 상은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 사실은 카메라 선택에도 도움이 된다. 소위 "초경량" 카메라는 바로 "왕흔들림" 카메라를 뜻하는 것이다. 바람과 같은 자그마한 진동에 굴복하지 않는 구경이 크고 이왕이면 적도

의식 망원경은 바로 별밤자리의 꿈이다. 이러한 망원경을 가진이라면 목성의 무늬와 그 위성들을 언제라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카메라를 북극성 주위에 고정하고 B셔터로 3시간 정도 매우 어두운 곳에서 고정촬영을 하면 그 유명한 별의 일주운동 사진을 직접 찍을 수 있다. 이쯤에 당신은 이제 별 관측의 초보를 넘어 실명하는 별들의 일주운동을 말이다. 필리프스가 없으면 T-셔터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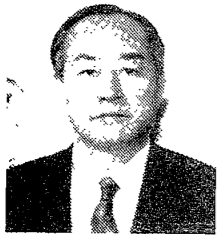
당신의 두 손에 만약 카메라가 없다면 동쪽 하늘 스피카를 찾아 봄의 말없는 사랑을 느끼는 것도...

정성욱 (자연과학연구회)

Advertisement for Hoesung Group. The top part features a large illustration of a man in a white lab coat holding a magnifying glass over a globe, with other people in the background. The text reads: '호성은 항상 노력하는 젊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Below this, it says: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 노력하는 젊음이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The middle section lists the group's values: '꿈과 낭만이 살아있는 대학생— 우리 삶을 통틀어 가장 자유롭고 정열이 넘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뜨거운 가슴과 또렷또렷한 눈빛으로 새로운 학문의 깊이를 더해가고 선명한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어가는 젊은이들— 이들이 바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입니다. 호성은 항상 노력하는 젊은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At the bottom, the Hoesung Group logo is shown with a list of member companies: 호성물신, 동양, 이원, 동양폴리메스터, 동원, 동원, 호성중공업, 호성메타, 호성비스코, 한국에너지, 호성폴리텍, 호성인포메이션시스템, 호성데이터시스템, 한국타이어, 한국진지, 미전피혁, 동성, 대성, 호성금융, 호성기어.

특사

21세기 역사선도 지식생산성 제고를



대학신문은 그 대학의 얼굴이요, 또한 목소리다. 동대신문이 동국대학교의 얼굴, 그리고 목소리로서 고교의 성을 지른 지도 어언 45주년, 이제 어엿한 장년 이 되었다.

해방후 한국대학이 걸어온 길은 순탄치만은 않다. 6.25, 4.19, 5.16, 6.3, 5.17등 수많은 역사의 소용돌이를 겪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때마다 우리 대학들은 고난과 시련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한국대학의 젊은 지식들은 자유와 진리를 위해 고귀한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순교자적 정신을 한번도 잃은 적이 없었다. 세계 대학의 지식사에서 불과 반세기도 안되는 짧은 역사 가운데 대학이 자유와 진리, 민주를 위해 이처럼 한 시대의 역사를 선도하고 창조한 사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동국대학교는 4.19 이래 이러한 시대창조의 역할에 있어 언제나 선도적 입장에 있었고, 그 안에 동대신문의 변천사는 '지성의 독립'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동대신문이 그간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민주주의의 의지는 결국 '동국'이 갖고있는 일체평등, 일체자유, 불교적 전하이념에서 창출되어 나온 것임을 감안 할 때, 동대신문의 '단대사'를 더욱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점에서 그간의 동대신문의 노고를 칭찬하고 싶다. 그러나 대학신문의 사명은 또 다른 곳에도 있다. 학풍의 조성, 대학문화의 창달이 그것이다. 대학신문의 고민은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을 어떻게 조화하는나 하는데 있다고 한다. '신문'인 이상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또 '대학'의 범주를 벗어 날 수 없는 이상, 그것은 학문적 차원이어야하고 창조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대학기자들의 고뇌가 있을 것이다.

초기 동대신문은 학술적 보도에 많은 지면을 할애, 아카데미즘을 추구한 성격이 강한 반면, 60년대 이후는 앞서 말한대로 대사회적 발언·비판이 지면의 많은 부분을 차지 했다. 시대의 반영이라고 생각되지만, 이제 동대신문의 얼굴은 '대학문화의 창달'이란 본 모습으로 돌아와 주어야겠다.

21세기는 '지식'의 시대고 무한경쟁의 시대다. 자유·진리·민주의 이념적 투쟁에서 이제 대학들은 '학문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동대신문의 얼굴과 목소리가 '고급지식인'을 사회에 공급할 수 있는 대학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그것을 위해 학문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는 그러한 매체의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학생기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한다.

송석구 (본교 총장)

편향된 사회시각지향 보편적 가치 살려야



먼저 올해로 창간 45주년을 맞는 우리 모교의 신문, 동대신문의 불혹을 기려 충심으로 축하해 마지않는다. 돌이켜 보면 마치 어제같은 학생 시절이 주머등같이 지나간다.

6.25를 거쳐 서울로 환도를 하고 그 삭막한 시절, 그래도 동양의 기슭에서 꿈을 싣고 키우던 동문들. 지금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우뚝 서 있는 오늘, 참으로 감회가 깊다.

1953년 환도하던 그 해 겨울 유난히도 춥던 날, 신문 속간을 위해 지금은 고인이 된 이창대형과 최봉수 학장님을 찾아뵙던 일, 백철선생님께서 '셋발'이라는 패 이름이던 일식집에서 친히 뜨거운 국물과 밥을 사 주시던 출고 배고픈 시절의 고마운 기억 등, 지금은 다 아득한 옛일로 되살아날 뿐이다.

신문이 상업지는 기관지든 간에 본래의 사명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래도 학교신문, 특히 대학신문은 일반 신문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대학은 학문화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아카데미즘에만 치우쳐도 재미가 없다. 그래서 신문의 기능 중 계도기능과 비판기능을 두루 섞어 대학생들의 세계를 구체화해 노력한다. 여기에 대학생이 만드는 학교신문으로서의 특색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나라의 모든 대학신문들이 그 본래의 사명적 기능에서 벗어나 어떤 특정한 사회적 기능에 몰려들 때가 있었다.

물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역사적 배경과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그런 시기에 우리 동대신문은 어땠던가, 지금은 한쪽으로 치우쳤던 것을 기억한다.

민주주의의 본령이 여론이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었지만 그 여론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보편적 가치 기준으로서의 정론이라야만 한다. 만일 그 여론이 어떤 계층이나 주권에 의한 조작된 것이라면 그것은 오도된 여론이다.

이런 뜻에서 대학신문이 지녀야 할 정도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우리 모교의 발전도 동대신문의 발전과 그 축을 같이 한다고 할 때, 새삼 동대신문의 무게는 천근만근이 된다.

우리 모교의 신문, 동대신문의 45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그 동안 아무말없이 신문만들기에 몰두해 오신 많은 선배와 후배들께 진실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린다.

황명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국제화시대 이끄는 보물제1호가 되라



오늘 우리 동대신문이 창간 45주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이다. 비록 대학신문이라는 특수성을 지녔지만 그 기능면에서나 미치는 영향등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않기 때문에 동대신문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전통이 자랑스럽고 역할이 컸다고 자부하고 싶다.

사실 동대신문은 오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또 이러한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할 동대신문이기에 나는 감히 동대신문을 '동국대학교 보물 제1호'라고 말하고 싶다. 때문에 후배들에게 이러한 주문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 첫째는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대응이다. 세계는 날로 달라지고 있으며, 국경이 없어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다. 그런데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동대신문에 경쟁국들의 대학생활과 학문태도, 새로운 학술정보들이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이다. 신문이 선진국가의 모델을 앞장서서 소개함으로써 세계로 눈을 돌리게 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둘째는 동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각계각층에서 나름대로 능력을 인정받으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동문들이 수없이 많다. 이들에게 동국인이라는 소속감을 심어주고 재학생들에게는 훌륭한 전통을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는 기풍을 진작시키는 역할도 동대신문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동국의 자랑거리를 찾아 소개한다든지, 자신의 삶을 윤곽하게 가꾸어 나가는 동문들을 찾아내어 클로즈업시킴으로써 타산지석이 되게 한다든지, 동국비전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등이 그러한 작업이 될 것이다.

셋째는 동대신문이 동국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다짐이 있어야겠다. 오늘 우리는 동대신문이 그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이 없었는가에 대해 다시한번 검증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간혹 시(時)의 인정에 인색하고 비(非)의 측면만 들추어내는 것을 용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냉철한 사고와 이성이다.

이제 동대신문은 마흔다섯이라는 중후한 중년에 비유되는 역륜을 쌓았다. 동대신문의 오늘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슬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다진 역사하기에 대학 언론의 위상정립에 있어서도 단연 앞서가야 할 것이다.

임덕규 (본사동인회 고문·디자이너시 발행인)

뿌리깊은 문학열정 평형감각 잃지않기를



동대신문이 창간 45주년을 맞는다니 참으로 깊은 감회를 금할길 없다. 동대가 국내 어느 대학에 비해도 역사가 오래이고 학문의 맥이 깊은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그리고 건학

의 뿌리가 역사상 우리 겨레와 운명을 같이 하고 민중과 성의(盛衰)를 함께 한 전통 불교에 있음도 세상이 다 안다. 이와같이 그 역사가 길고 뿌리가 확실한 대학이므로 그동안 학문적 축적은 물론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왔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동대신문은 이같은 유서깊은 동대의 삼의(三義)요, 동국인의 사상의 거울이다. 동대신문을 보면 동국인들의 학문적 성취를 실감할만큼 물론 동국인들의 숨겨진 호흡을 느끼게 된다. 때로는 섬광같은 예지와 능숙된 학문의 정수(精髓)와도 만나고 때로는 서툰 발걸음은 대학의 양심과 노도(老道)의 합성을 보고 듣는다. 특히 잊혀지지 않는 것은 뿌리깊은 문학에의 열정이다. 동대는 옛날 해와 전문이며 우리겨레의 문맥을 이어온 역랑은은 작가 시인의 산실이기도 하며 그 씨앗이 동대신문의 터널에서 움튼던 것이다. 오늘 날의 우리 대학교육은 대학의 대중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양산체제에 들어서 있다. 교육의 질에 앞선 이양산체제가 대학과 학문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일면이 있기도 하지만 학문의 대중화, 정보의 대중화를 통한 우리 사회의 지적, 문화적 수준을 한차원 높여준 공적을 묵과할 수 없다.

창간 45년을 맞는 동대신문에 당부코자 하는것은 이같은 대중사회에서의 대학신문의 기능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것이다. 학문과 정보의 대중화를 표방하는 것이 대학의 기능이라면 대학신문도 이같은 대학기능의 대중화와 내실화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오늘의 대학이 다원화사회를 앞장서서 이끌고 있다면 대학신문도 대학안에서 분출하는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국량(國量)과 평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 한 시대의 대학신문들이 독재적 정치체제에 항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형감각을 일탈한 일면을 엿보인 경우가 있었다면 이는 대학의 양심에 충실하기위한 어쩔수 없는 몸부림이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학과 대학신문의 사회적 역할을 감안할때 이는 한시바세 극복해야 할 현안임을 말하고 싶다. 특히 동대가 다른 대학에 비해 오랜 역사와 국학을 중시한 학문적 전통을 가진 학교인 바에는 동대신문은 대학의 대중화, 국제화의 흐름에 함께 역사의 뿌리에 충실하는 평형감각에 특히 유의하는 신문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각별히 당부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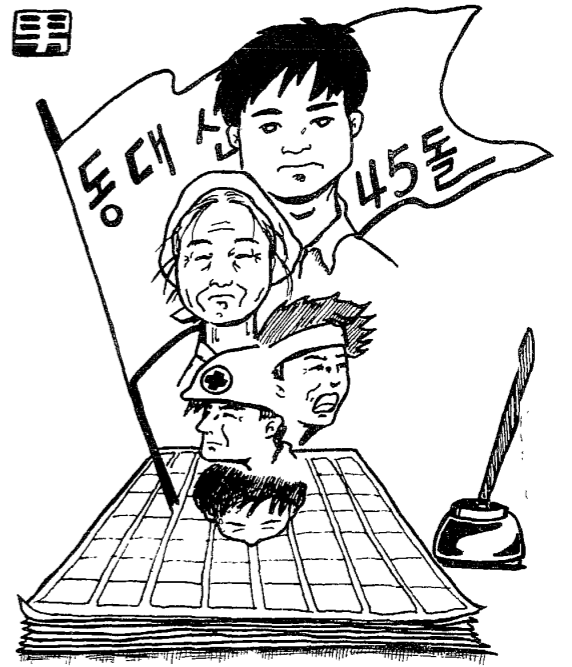
이종석 (동아일보 본필고문)

축하만평

묵직하다! 세월의 무게만이 아닌 열정과 노력의 무게이길...



최경인 (0칸강좌 무역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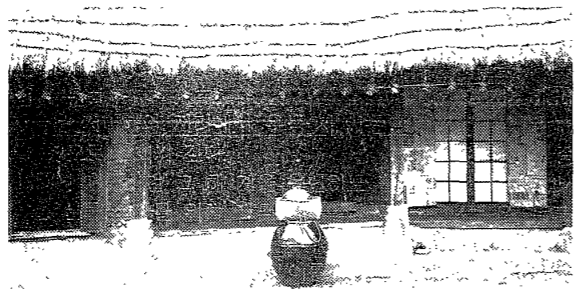


김상남 (사범대 지교 95졸)

최경인군은 본지 만화 '붉은이', 김상남 동문은 '동국만평' 필자였습니다.

탐방기행

알고보면 우리들 몸에는 또다른 '문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제주'라는 문화입니다. 종종 잊고사는 내 나라 땅 '제주' 한때는 '제주'도 하나의 나라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땅에는 아직도 탐라국이라는 이름의 문화와 역사가 본래 모습으로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제주의 풀한포기, 바람 한점도 결코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분들 가운데에는 이곳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은 서울과 부산에서 매일 35편 이상 제주에 모시고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 (02) 756-2000



동인현주소

80년 이후

동대신문 역사

'동국의 역사와 함께 한...'이라는 말은 선뜻 독자들에게 와닿지 않는 표현일지도 모른다.

동대신문의 역사를 지면에 국한시켜 살펴본다면, 그것은 곧 동국의 역사를 조명하는 것이며 대학과 사회의 관계, 대학의 이념과 사명이 어떻게 변화발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창간 45돌을 맞아 동대신문 지면을 중심으로 격동의 80년대와 변화와 모색의 90년대를 재조명해 보려 한다.

(편집자)

지면체제와 편집

77호(80년9월9일자)부터 격주 8면체제 모습을 보인다. 그동안 부정기적인 지면체제는 이후 4-8면 체제로 각 변별 특성에 맞는 기사가 배치된다.

편집에 있어서는, 1012호(89년3월1일자) 전면가로쓰기로의 전환을 시작으로 이때 제호와 지면구성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학내 기획기사

편집 변화는 곧 시대와 독자의 요구

정치·사회 기사에서 학내기획·문화기사로 관심이동

80년 이후 현재까지의 학내 기획시리즈를 살펴보면 동국의 정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기자들의 심층취재기사 형태로 연재된 '대학은 지금 고민하고 있다'와 학생 교직원과의 화합으로 진행된 '동국80년' 기록에서 시리즈 내용은 이후 제기된 학내 제반문제와 그 극복방안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술 논단

사회면(학술·기획·특집형 형태)에 실린 학술적 논문들은 85년을 정점으로 다른 양상을 띄게 된다. 85년 이전의 논문들이 각 전공분야에서 이론한 순수 학술적인 논문들이었던 반면 85년 이후의 논문은 시사적인 문제들에 비중을 두고 있다.

횡수가 줄어든다.

'한국의 불교미술사'(81년 3월17일자부터 4회) '한국문단 무엇이 문제인가'(81년 9월15일자부터 8회) '신라문화 그 맥을 찾아'(83년 3월22일자부터 10회) '20세기 세계문학의 흐름'(84년 3월27일자부터 11회) '80년대 초반의 한국문화사상'(86년 11월18일자부터 4회) '문예시대 문제작'(87년 8월25일자부터 8회) '학생이 쓴 작가론' 등은 본교 학문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시리즈들이다.

그 중 '시와 모국어'(84년9월4일자부터 12회) 시리즈는 본사와 국문과 학생들이 공동기획하고 학생필진으로만 이루어진 최초의 실험적 시리즈이다.

사회면 시리즈의 변화

진보적 시각으로 사회 제반문제를 비판·지적하는 시리즈가 본격화된 것은 86년 이후이다. 그전에도 이러한 기획이 지면화되긴 하지만 86년 이후의 기획들은 당시 사회상황과 관련, 그전 기획들과 새로운 양상을 띠고 점차 '사회변혁운동'에서의 대학언론차원으로 발전한다.

'한국사회구성체의 현대적' (86년10월7일자부터 6회) 시리즈를 시작으로 '지배이데올로기의 형성'과 '재생산'(88년5월10일자부터 7회) '변혁하는 세계정세와 한반도의 재통일'(91년 9월11일자부터 8회) 등은 당시 대학신문과 지하출판물이 아니면 사회학이 힘든 주장을 담고 있다. 86년 이후 90년까지 이러한 경향은 학생운동과 변혁운동에 대한 정권의 유폐조치로 이전까지의 역설이 지면에 소개된 결과이기도 하다.

하다.

또한 '바람직한 대학생활을 위하여'(88년 3월11일자부터 4회) 시리즈를 시작으로 이후 신입생을 위한 기획들은 대학과 대학인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밝히고 있다.

85년 총학생회 부활 이후 학생회 전반에 대한 크고작은 기획들이 지면화된 것도 지면흐름의 한 특징이다. 91년 '진단과 모색 90년대 학생회'시리즈는 학생회에 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했던 당시 상황과 비교해볼 때 현상에 비추어 그 지향점을 밝히고 있다.

90년 이후

90년대를 흔히 변혁기 과도기 모색기 등으로 표현하듯이 급속한 변화들이 대학과 사회에 나타났다.

본지는 정치·사회적 기획에서 점차 생활·문화·학내 기획으로 지면 내용이 변화되고, 94년 '세계로 가는 대학'시리즈는 교육의 세계화 경향을 반영한다.

또한 90년 여론면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91년 '연말체면' 신설, 92년 모니터제도 실시를 걸쳐 현재의 동대신문 2면의 모습이 만들어진다.

의미있는 기사 몇개

'특기2가 대학극장에서 질찬리 상영' (88년 3월11일자부터 4회) 시리즈를 시작으로 대학신문은 여백의 상차들을 남기며 시대의 아픔과 분노를 겪어야 했다.

765호(80년 5월13일자) 1-2면에 실린 '유신독재 반대 국제 시국선언문'은 주요 내용이 삭제된 채 허연 여백을 남기며 게재된다.

800호(81년 9월15일자)에 실린 통행금지 현상취재 '12시부터 4시까지, 그 일어 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통행금지 시간의 모습을 그리면서 폐지론을 주장하는데 다음에 1월15일 정부는 통행금지를 전면해제한다.

965호(87년5월5일자) '성숙된 민중의식'과 '리더' 한국불교기획은 처음으로 변혁운동에서의 불교의 역할과 불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인 기사였다.

988호(88년3월24일자) 20대 총학생회 출범식에서 후보자의 공약과 유세가 처음으로 지면화된 기사이다.

지면의 변화는 시대의 요구 80년 이후 본지의 기획시리즈를 중심으로 살펴 본 지면기획은 '대학은 항상 그

자체로서 존재해야 하며 동시에 사회·시대적 사명을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당위를 확인한 작업이었다. 지면의 변화는 항상 당시의 대학·사회의 상황들과 무관하지 않다. 오히려 선도적이며 진보적이었던다. 최근의 본지를 비롯한 타대학 지면을 살펴보면, '혹 대학은 그 자체로 존재하며 사회속에 있다'라는 담위가 흔들리지 않는가 의문이 든다. 대학신문의 지면은 또한 그 주체자인 학생들의 요구와 정서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대학신문은 언제나 대학이 지니는 이념과 사명 위에 존재할 수만은 없을 때가 있다.

또 독자들의 질책과 반응없는 실이있는 지면화 될 수 없다. 때문에 동대신문의 역사는 곧 동국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국인의 시대적 고민, 갈등, 의지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병민 (본사 전 편집장)



大新聞社 榮進 同人 祝賀會



4월15일로 창간 45주년을 맞는 동대신문은 대학의 목적으로서, 사회정의의 지킴이 파수꾼으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왔다. 그 주역들이 바로 기자들이다. 기자들은 대학언론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동국발전이라는 명제 앞에 용기를 얻고 견뎌해 왔다.

△박래준(50국문)=농업 △오봉열(50국문)=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장 △신국주(50사화)=전 동국대 총장서리 △정성기(51정치)=전 풍천화협(주) 사장 △이종만(51경제)=전외교관(대사) △서남춘(52국문)경기대 교수 △김진철(52정치)=전 국회의원 △이종출(54국문)=전 세종대총장 △황명(55국문)=시인,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이형기(56불교)=동국대 교수 △박상근(58법학)=경기대 교수 △강민(59국문)=시인, 도서출판 무수막 대표 △김준기(59사화)=은평구청 재무과장 △김병민(59법학)=전 동국대 공보부장 △고진국(59경제)=고려인쇄사 대표 △임덕규(60법학)=전 국회의원, 영문 디플로머시 발행인 △최창호(60국문)=부산일보 부국장 △최희림(61국문)=시인, 의협신문 △홍보실장 △권태호(61국문)=김천고교 교사 △김덕린(61국문)=전남석유 대표 △윤준우(61영문)=성주 명륜총 교사 △박완일(61불교)=월간 법문 발행인, 전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신도회총 권순우(61국문)=한국수출입은행 감사 △김길훈(61국문)=경기도민일보 편집국장 △강대봉(62국문)=은평고교 교사 △송석구(62

◆본사 동인은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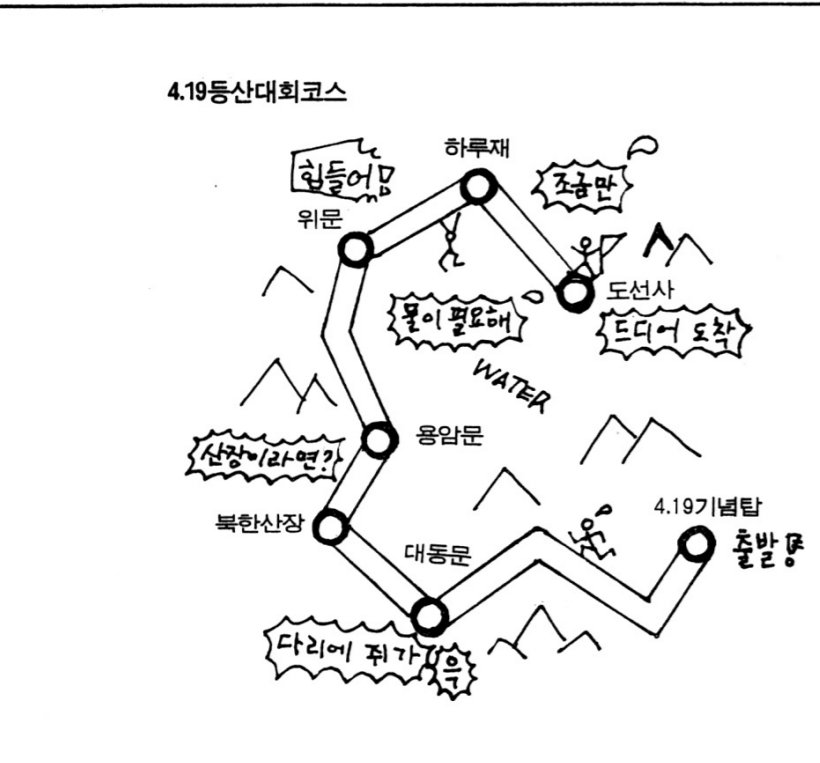
동국발전 앞장섰던 기자들, 사회발전 활약중

철학)=동국대 총장 △박정희(62영문)=시인, 한양여전 교수 △김기학(63경제)=육군종합행정학교 교수 △김원래(63국문)=영화사 대표 △윤정광(64영문)=방송작가,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송재운(64법학)=동국대학교 겸 동대신문사 주간 △이태수(64법학)=서울 민사지법 동기과장 △장문평(64국문)=문화평론가 △하종현(64법학)=(주)국도 부사장 △김영주(64법학)=경성대 교수 △민경봉(64법학)=경라건설 대표 △최원(64국문)=시인, 전 대전MBC 상무이사 △이우석(64국문)=시인, 문화예술사 대표 △임향근(65경제)=원광대 교수 △이창우(65농경)=안산 삼일학교 교사 △오익환(65법학)=경향신문 조사연구실장 △이창식(66사화)=(주)MBC예술단 상무이사 △최무정(66법학)=연합물산(주) 상무이사 △이희우(67법학)=동국대 교수 △한용환(66영문)=동국대 교수 △박정영(67영문)=신한금융 운영위원 △양영호(67영문)=삼성미술문화재단 홍보부장 △정남기(68경제)=연합통신사 조사부장 △안양자(68국문)=방송국작가 △박태원(69국문)=진선여고 교사 △선문훈(72식광)=전 풍천제과 대표 △양태규(70국문)=진선여고 교사 △정정수(70영문)=동아일보 편집부 차장 △윤일병(74정치)=대한통문(주) 해외사업부 △염환국(71법학)=한국전력공사 총장비서 △염영길(71국문)=경상남도 편집국장 △심종원(71경제)=한국인삼수출공사 △이봉춘(72불교)=동국

대 교수 △최순열(72국문)=동국대 교수 △박대석(75영문)=KBS 북경특파원 △김명수(72영문)=동부건설(주) 중부지사장 △서현석(73국문)=신흥기업(주) 총무이사 △김천일(73식광)=롯데쇼핑(주) 식품과장 △이춘만(73식광)=이원대표 △신관호(73경제)=동국대 1백주년본부 사업부장 △임성규(73영문)=정훈농산 대표 △김형근(74불교)=도서출판 동쪽나라 대표 △이문연(74국문)=상일여고 교사 △나인수(74법학)=한국투자신학 △안동일(83법학)=BBS신규 PRJECT △박원배(82국문)=경향신문 편집부 △노명호(82무역)=신세계백화점 △이광일(82무역)=E-LAND기 획실장 △고기용(83국문)=한국통신금융 고객사업부 대리 △김재천(82영문)=(주)CEDECO 개발부과장 △김찬주(83정치)=국회의원 보좌관 △정희성(83-국문)=정매거진 대표 △최은영(88국교)=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부 △황해창(88경주영문)=내의경제신문 사회부 △정관희(86경경)=한국경영정보컨설팅 전문위원 △김학순(86무역)=KBS-TV2국 PD △심규박(84통계)=동국대 교수 △나혜숙(84국교)=장병중 교사 △장길수(84경제)=전자신문 취재부 △박성태(84통계)=외환은행 사무관리부 △양희태(84경주영문)=학산한의원장 △남 선(87영문)=불교방송 종교문화부 △최충홍(85국문)=불교방송 신규 PROJECT △김금희(85국교)=불교 TV, 스크립터 △이택(86영문)=전자신문

취재부 △회사전(88경경)=현대정공 자재부 대리 △박경석(88국교)=교원복지신설 편집부 △서중철(88경주법학)=경주일보 취재부 △장희성(88경경)=문화일보 편집부 △임지수(86경경)=전자신문 편집부 △정연록(89농경)=유경실업(주) 내수사업부 △서재철(86경주경경)=대원강원(주) 총무부 △이경우(90무역)=전자신문 편집부 △김영태(87국문)=내의경제신문 편집부 △최창성(87화학)=(주)인사업 △최희환(87화학)=(주)인사업 △최희환(87화학)=힐튼호텔 비서실 △정승은(87경주조경)=전 총동창회 간사 △송은경(87경주조경)=경향신문 △김태원(88불교)=주간불교신문 기자 △김홍부(91농경)=한국일보 편집부 △정병환(88국교)=(주)우리교육-업무부 △최준호(88국교)=우리교육 기자 △안동일(83법학)=BBS신규 PRJECT △박원배(82국문)=경향신문 편집부 △노명호(82무역)=신세계백화점 △이광일(82무역)=E-LAND기 획실장 △고기용(83국문)=한국통신금융 고객사업부 대리 △김재천(82영문)=(주)CEDECO 개발부과장 △김찬주(83정치)=국회의원 보좌관 △정희성(83-국문)=정매거진 대표 △최은영(88국교)=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부 △황해창(88경주영문)=내의경제신문 사회부 △정관희(86경경)=한국경영정보컨설팅 전문위원 △김학순(86무역)=KBS-TV2국 PD △심규박(84통계)=동국대 교수 △나혜숙(84국교)=장병중 교사 △장길수(84경제)=전자신문 취재부 △박성태(84통계)=외환은행 사무관리부 △양희태(84경주영문)=학산한의원장 △남 선(87영문)=불교방송 종교문화부 △최충홍(85국문)=불교방송 신규 PROJECT △김금희(85국교)=불교 TV, 스크립터 △이택(86영문)=전자신문

취재부 △회사전(88경경)=현대정공 자재부 대리 △박경석(88국교)=교원복지신설 편집부 △서중철(88경주법학)=경주일보 취재부 △장희성(88경경)=문화일보 편집부 △임지수(86경경)=전자신문 편집부 △정연록(89농경)=유경실업(주) 내수사업부 △서재철(86경주경경)=대원강원(주) 총무부 △이경우(90무역)=전자신문 편집부 △김영태(87국문)=내의경제신문 편집부 △최창성(87화학)=(주)인사업 △최희환(87화학)=(주)인사업 △최희환(87화학)=힐튼호텔 비서실 △정승은(87경주조경)=전 총동창회 간사 △송은경(87경주조경)=경향신문 △김태원(88불교)=주간불교신문 기자 △김홍부(91농경)=한국일보 편집부 △정병환(88국교)=(주)우리교육-업무부 △최준호(88국교)=우리교육 기자 △안동일(83법학)=BBS신규 PRJECT △박원배(82국문)=경향신문 편집부 △노명호(82무역)=신세계백화점 △이광일(82무역)=E-LAND기 획실장 △고기용(83국문)=한국통신금융 고객사업부 대리 △김재천(82영문)=(주)CEDECO 개발부과장 △김찬주(83정치)=국회의원 보좌관 △정희성(83-국문)=정매거진 대표 △최은영(88국교)=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부 △황해창(88경주영문)=내의경제신문 사회부 △정관희(86경경)=한국경영정보컨설팅 전문위원 △김학순(86무역)=KBS-TV2국 PD △심규박(84통계)=동국대 교수 △나혜숙(84국교)=장병중 교사 △장길수(84경제)=전자신문 취재부 △박성태(84통계)=외환은행 사무관리부 △양희태(84경주영문)=학산한의원장 △남 선(87영문)=불교방송 종교문화부 △최충홍(85국문)=불교방송 신규 PROJECT △김금희(85국교)=불교 TV, 스크립터 △이택(86영문)=전자신문



이번주 토요일 뭐할래?

출발- 떠나온 북한산 나무그늘에서 먼 풍경과 오버랩되는 그날의 합성과 지성을 느끼며 내 손 맛잡은 천구 함박 웃음을 보며 그런 내 모습을 생각만 해도... 그런 생각들에 "이번주 토요일 뭐할래?" 를 묻고 친구를 불러 모아 멋지고도 슬픈 산행을 즐겨야겠다.

- 1. 일시: 1995.4.15(토) 09:00-17:00
2. 장소: 북한산(4.19기념탑)-대동문-북한산정-위문-하루재-도선사
3. 대상: 전 동국인
4. 내용: 4.19기념식, 동산대회, 정기자리 및 시상식
5. 구성: 가. 4인1조 (학과, 동아리, 동문 등 자유 편성) 나. 학과 팀(교수 및 학생의 각 50%이상 참가 학과에 한함)
6. 시상: 가. 최우수상(1조), 우수상(3조), 자연보호상(2조), 정기자리상(5조)
7. 접수기간: 1995.4.3(월)-4.14(금)
8. 접수처: 학생과(본관3층, 전화280-3048), 산악부(중앙도서관 지하)
9. 조경회: 1995.4.14(금) 오후 3시-중앙당
10. 기타: 1. 참가기념품을 제공하며, 점심 도시락은 개인 지참할것. 2. 수유 전철역에서 4.19기념탑까지 학교버스운행 (8시10분부터 15분간격)

창간 45돌 1950-1995

동대신문사



# 선배에게 듣는 학생기자시절

창간 45돌 1950-1995

## ◇6·10 집회-망원렌즈 분실사건

### 이한열군 장례식...1백만명 운집 시민가세 야간의 반독재 투쟁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은 개헌운동을 가열시켰다.

기자는 발바닥에 처지가 생길 때까지 뛰어야 한다며 지금도 발바닥의 무릎을 치질이라고 박박 두드려대는 이형은 술자리에서 그 시절을 되돌리는 날이면 입에서 침이 된다. 당시 우리는 스스로 '학생이라 자위하며 늘 무엇인가 목말라 했다. 멀리 보고 싶었고 높이 날고 싶어 했고 조금은 건방져 보이게까지 한 우리는 아주 성숙들은 인생의 망원렌즈를 또 날카로운 마음의 칼을 갖고 싶어했다. 86년 입학후 7월 만에 열린 18대 총학생회 출범식날은 '학원자유화'가 무색할 정도로 서슴없이 뛰어난 전경들로 인해 무너졌다. 무차별 유린당했던 그날의 대학은 그렇게 작고 허약할 수 없었다.

그후 경찰은 캠퍼스안을 제집 드나들듯하며 행사 때마다 최후탄과 곤봉으로 저지했고 우리도 어느덧 그 당함애 한 부류가 됐다. 이때까지 의식의 충돌로 방황하던 우리에게 '죽제'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였고 그 허탈을 매개한 최후탄내을 속에서 술이라는 것으로 길들였다. 때문에 우리는 86년 5월 축제대신 '해방동 국제'를 치뤄야 했다. 7월중 일어난 임선배의 부상사고(경찰이 쓴 직적 최후탄에 의해 뇌손상을 당함)는 이미 훗날 이한열군의 죽음을 예고한 것이기도 했다. 또 아시안게임중 휴임을 하지 않았던 학교방학도 당국에 골백, 휴교조치가 내려지자 교문밖에서 서성거리다 11월을 맞이했고 학생의 달인 '신검동 사건'으로 선배와 친구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듬해는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사건에 이어 4.13호헌조치가 있자 이에 반대하는 각대학 교수들의 '시국성명'이 나왔고 본교에서도 교수 10여명의 시국성명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5월 18일에는 대학원생들까지 가세해 시국성명이 유원처럼 번져갔다.

그러나 지금도 신문사 앞길에 웅크리고 붙어있는 한장의 정제식 사진은 당시 신문사의 진짜 망원렌즈를 잃게 만든 사진의 날이었다.

## ◇기자로서 세가지 실패담(?)

### 계엄군, 캠퍼스 정령... '필동고지'로 표현 교수 휴강 1620시간기사...H교수 사표

어 버리게이트 대신 길을 막고 있던 소방차를 탈취, 후진시키면서 더욱 경무대를 위협했다. 이때 느닷없이 총소리가 터지기 시작했고 효과 동 일대는 순식간에 피바다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위급지경에 달했던 경무대의 경찰들이 밀려드는 동대대교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던 것. 나는 이때 이미 학생기자로서의 취재와 사명과 본분을 망각한채 "이승만 둘러가라"를 외쳐대는 성난 데모대의 한사람이 되어 있었다.

"우리도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누군가의 외침에 따라 데모대는 무조건 무기고 습격에 나섰던 것이다. 그런데 성난 데모대가 무기고에 접근하려던 순간, 이번에는 더 엄청난 무차별 총격이 가해졌고, 여기서 나는 길바닥에 나뒀던 경찰의 군화발에 등을 밟히고 손등에 철과상을 입은채 구사일생으로 현장을 탈출했다. 취재에 나섰다가 데모대로 돌변해버린 첫 실패담이었다.

두번째 실패담은 당시 휴강이 잦

았던 대학의 현실을 바로잡고 교무과의 서류를 훔쳐 재호를 바꾼 '동대신문'에 한학기 휴강통계를 비롯한 것이었다.

지금 기억으로는 제목을 '한학기 휴강 1620시간'으로 뽑은것 같은데 아무튼 이 폭로기사로 학교안은 온통 발칵 뒤집혔고, 한학기에 강의를 단 한번도 하지 않은 채, 월급과 보너스를 받아놓고 있던 유명교수 H모씨에 사표를 내고 동대를 떠났는데, 그 덕분에 나는 '문제의 인물'로 찍히게 되었다고 회상하며 웃는다. 거론되었으나 이것이 학생기자의 두번째 실패담(?)이었다.

그리고 6.3사태때 동대컴퓨터는 군인들이 점령했고 '동대신문'도 어김없이 계엄군의 점령을 받아야 했는데, 그때 나는 '필동고지'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의 캠퍼스가 군인들의 점령당했음을 학우들에게 알리려는 한편, 계엄령하에 학교를 방문한 계엄사령관이 총화장을 물이놓고 폭언과 협박을 자행한 사실을 겹쳐서 '동대신문'에 폭로했다.



◇필자는 4·19취재가다가 데모대로 돌변했다. 우측 사진은 4.19 동우담

'계엄사령관 일행, 공갈협박차 내교?란 제목하에 무지막지만 래업사령관의 폭언내용을 폭로했으니, 그날로 신문은 모조리 압수되어 화형을 당하는 비극을 맞았고, 정보부, 치안국, 시경, 중부서, 보안대의 무서운 조사와 심문과 협박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동대신문'에서의 내 마지막 실패담이 되어 나를 동대에서 쫓아냈으니, 그 한은 아직도 풀리지 않다.

참고로, 그 당시 계엄사령관이 총장실에서 내뱉은 폭언과 망언은 이러했다.

- 폭폭한 교수는 국회의원 해직고 병신같은 것들만 대학에 남아있으니 학생들이 말을 들을게 뭐야!  
- 이 학교 남학생들이 저 남산 숲속으로 여학생을 끌고가서 강간

하지 않는것은 그것이 병신이어서가 아니라 법이 있기때문에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칙을 엄하게 정해서 데모하면 퇴학시켜라. 개 꼬리 같은 놈들, 또 데모하면 총살을 시킬 것이다!

이 분통터진 내용을 동대신문에 폭로했으니 불타버렸고, 일간신문사에도 알렸으나 묵살되었다. 당시 고려대 교수였던 시인 조지훈선배가 동아일보'서서여화'에 이 내용을 칼럼으로 썼고, 모교의 서경수교수가 이 분통터지는 내용을 '사상계'에 수필로 썼다가 수사기관에 끌려가서 곤욕을 당했는데 탈교수서교수도 세상을 떠났으니, 그 신세 같을 길도 없다.

윤 창 광  
(방송작가·82년 분사 편집장)

## ◇제853.4호 탄성

### 기관원에 의해 4·19특집호 배포 중지



◇배포중지된 4.19특집 853호를 인정키위해 853.4호로 발행했다.

어느 시대에선 대학신문은 그 시대 상황속에서 진보적이었고 그 진보적 성향 때문에 가성으로부터 홀대 또는 탄압을 받았다.

80년대 초반의 동대신문 제작상황은 지금의 그것과 사뭇달랐다. 먼저 국가정보기관원들이 대학신문에 사수입을 갖고있었고 학생대표로는 호국단이라는 유신정권의 신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시위가 벌어지면 대규모의 공판력이 10분이내에 학내에 진입하기에 시위를 한 시간이상 풀면 대학가에 화제가 될 정도였고 불쌍할 나쁜 시위주도자들이 오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나뭇가지가 쇠망으로 쌓여있

했었던 신문은 특집호에 게재하기로 한다. 그리고 신문제작이 임박해 서는 그동안 쓰지 못했던 시위기사를 작성했다. 그리고 김중배학우의 민주정신을 기리는 동우담 추모행사를 사이트 토포로 올리고 당시 취재부장인 최충훈군의 열성으로 대학신문은 처음으로 시위학우의 공판기사를 중요기사로 처리했다. 여기에 문화부장을 맡았던 김금희 양이 각종 시문과 칼럼 그리고 문화기사를 4.19정신을 기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당시 사실은 교수들이 썼는데 사실은 4.19이여기를 담기위해 한달전부터 필진선서를 조정했다) 특집호를 주도하면서 준비한 교수는 기자들의 이런 생각을 고려해 친한해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렸다. 문제는 수요일 아침 특집호는 아연 실례. 제작된 신문이 배포되지 못하게 하고 제작된 신문 3만부를 모쳐로 실어갔다. (몇몇기자의 순간적인 기지로 신문 참여부가 학교에 배포했다) 당시 편집장이었던 필자는 수요일 아침 여제거기 불려다니느라 그 어느때보다 바빴던 것은 물론이다. 아침 9시쯤 학생처장

실로 불려간 필자는 이미 와 있는 기관원에게서 빨간줄이 20여군데가 넘게 그려진 신문 한 부를 보게 되고 도대체 사실까지 이면식으로 나오는 대학신문은 처음보다는 편집과 함께 신문사부장이 자비서를 쓰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는 협박을 들어야했다.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한 학교에서도 교수회의까지 열어 대책을 숙의했다. 필자는 동료나 후배기자들에게 의연하려했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당시 기관원들의 파워를 조금 알고 있던터라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약간의 겁을 먹은채 불안스럽게 지켜 볼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문이 배포금지됐다는 소식이 학내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많은 학우들이 신문사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와 기자들을 격려했다. 그리고 일부학생은 독재정권의 이같은 횡포에 과감히 맞서겠다고 대규모 시위를 준비했다. 여기에 오전회의때만해도 방관자세를 취하던 교수님들도 회의석상에서 일개 기관원 하나가 대학을 이렇게 흔들어서야 되겠냐며 흥분했고 주간교수였던 오홍석교수는 여제거기서 들려오던 비난의 소리에 강력히 대처하며 주간직을 던지며 투쟁의지를 보였다. 마침내 문제를 삼았던 기관원이 대세에 밀려 특집호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조건을 내세우

며 슬그머니 피리를 내렸다.

특제정권 눈치를 봐야했던 대학측에서도 이 조건을 받아들여 이미 어디론가 실려간 신문을 찾지 않았고 기자들도 뼈달린 천여부의 신문이 복사의 복사를 거치면서 학우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민중잡지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호에서 일어났다. 학교측에서는 전호신문은 없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호 신문 호수는 전호신문 호수를 써야한다고 주장했고 기자들의 지난 신문은 많이 배포는 안했지만 주간교수와 기자들간의 대립은 계속됐고 결국은 누구의 제안인지는 잘 기억 나지 않지만 853.4호라는 산물이 탄생한다.

10여년이 지난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자꾸 웃음이 나온다. 얼마전에 지인을 통해 그때 강제로 산문배포를 막았던 기관원은 지금 부이사관이라는 고위직에 올라 그 날의 무용담을 후배들에게 한다는 소리를 듣고 쓴 웃음을 지었던 필자가 지금 그때의 안타까워해야할 당시 상황을 자연스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남 선  
(별교방송기자·83년 분사 편집장)

## 우리가 있는 곳엔 언제나

"커피? 난 블랙! 왜냐?"  
향이 참 좋구 설탕두 없어. 또 느끼하지도 않구 개운해.  
괜히 멋있는 거 같잖아?  
그래서 내게 딱 맞는 커피는 싱글.  
내가 있는 곳엔 언제나 테이스터스 초이스 싱글이야.  
블랙이라 좋구, 간편해서 더 좋은 것 같아.  
난 아무 커피나 마시지 않는대구!

설문

문화·여론면 기사 관심도 높아져 분산이전-교직원 70.4%찬성 학생 45%반대

대학발전 위해 면학풍토 쇄신 시설확충 필요

동대신문 관심도와 독자들의 요구 '동대신문에서 가장 관심있게 읽는 기사'는 △학내보도기사(411명 45.6%) △문화기사(123명 13.7%) △여론면(122명 13.5%) △사설 및 칼럼(93명 9.3%) 순으로 독자의 45.6%가 취재면 기사를 중요하게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비중을 두어야 할 부분'은 정치사면(80명 8.9%)을 제외하고 △학내기회(265명 29.4%) △문화기사(222명 24.6%) △학술기사(163명 18.1%) △여론(144명 16.0%) 순으로 나타났다.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학신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묻는 문항에서도 △학내소식 정보 전달(606명 56.2%) △여론조정(163명 18.1%) △교양지식전달(107명 11.9%) △비판(60명 6.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변혁운동으로서의 대학신문의 역할이 강조된 90년 전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지 관심도 설문에서는 △학내 보도기사를 가장 관심있게 읽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더 비중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학내기회이고 △학내 소식 정보 전달로서의 대학신문 기능이 중요하다고 응답자들은 보고 있다. 또 문화면과 여론매체면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으며 '중면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한편, 교직원들은 대학신문의 기능으로 정보전달(교수 49.5%, 직원 62.4%)과 비판(교수 25.8%, 직원 15.1%) 기능을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

다. 또 교수 학생들은 학내기회(24.0%)와 문화·예술(24.0%), 독자참여란(22.1%)에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제3캠프 설립과 학과조정 현재 정립화된 '제3캠프 설립과 분산이전'에 대한 설문결과를 교직원과 학생 간의 입장차가 컸다. 또 분산이전 대상 단과대 학생과 비적용 단과대 학생 간의 입장도 달랐으며 교수 학생들의 반대입장 비율이 서울보다 높았다.

먼저 교수의 경우 61명(65.6%)이 찬성, 10명(10.8%)이 반대하고 있다. 직원의 경우도 찬성 70명(75.3%), 반대 5명(5.4%)으로 322명(45.0%)이 반대, 202명(28.6%)이 찬성을 보이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과 달랐다. 교직원의 찬성이유는 △서울캠프 파포화 심해 해결(81명 61.8%) △실용 위주 단과대 특성활용(33명 25.2%) △지역발전 기여(6명 3.2%) 순이었다. 학생들의 반대이유는 △캠퍼스간 이질감 심화 우려(11명 34.2%) △이전 학과의 위상 격하(103명 32.0%) △분산이전은 전체 이전의 가능성 포함(71명 21%) 순으로 나타났다. 소수의견으로는 '통학 등 캠퍼스 이전에 따른 등·하교 문제' '지방대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등이 있었다.

캠퍼스 설립과 분산이전 문제에 대해 해당 단과대인 이·공대 생명 자연과학대 예술대 학생들과 그의 서울캠퍼스 학생들과의 입장차이를

보면, 해당 단과대 학생들은 61.9%(91명)가 반대, 23.1%(34명)가 찬성하는 반면 비적용 단과 학생은 38.4% 찬성(96명), 30.4% 반대(76명)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수캠프 학생들은 155명(48.9%)이 반대, 72명(22.7%)이 찬성하고 있다.

학과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도 교직원과 학생간의 의견차를 보이는데 교직원은 72.0%(134명)이 찬성하는 반면 학생은 54.7%(391명)가 반대하고 있다. 교직원의 찬성 이유는 △전공선택 폭의 확대(87명 64.9%) △대학행정의 효율성 극대화(25명 13.4%) 순이며 학생의 반대이유는 △학과전문성 결여(244명 34.1%) △과소속감 결여(109명 15.2%) 순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학과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공통된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의 학과조정 논의가 △단순한 대학종합평가에 대비방안으로 형식적인 면에 치중(307명 34.1%)하고 있으며 △학내 구성원들의 흥분한 논의 없이 진행중(294명 32.6%)이고 △학과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부재(189명 21.0%)하다는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현재 진행중인 학과조정 논의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응답자들은 보고 있다.

개별질문-교수 교수들은 활발한 연구활동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연구비 보조(61명 54.8%) △연구시설 설비(82명

34.4%)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6명 6.5%)를 꼽고 있으며, △학문에 대한 탐구(83명 89.3%) △해박한 지적능력(6명 6.5%)이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한편 현 교수회에 대한 교수들의 평가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38명 40.9%) △제 역할을 하고 있다(18명 19.6%) △잘 모르겠다.(17명 18.7%)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질문-직원 학내 직원의 자위에 대한 직원들의 응답은 긍정적(충신역할을 하고 있다) 43명(46.2%)이다. 반면 '보조역할' '형식적 주제'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각각 16.1%(15명)나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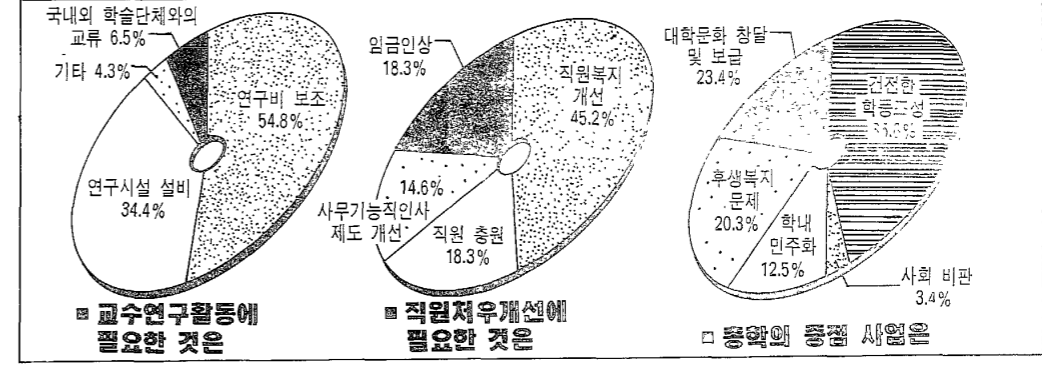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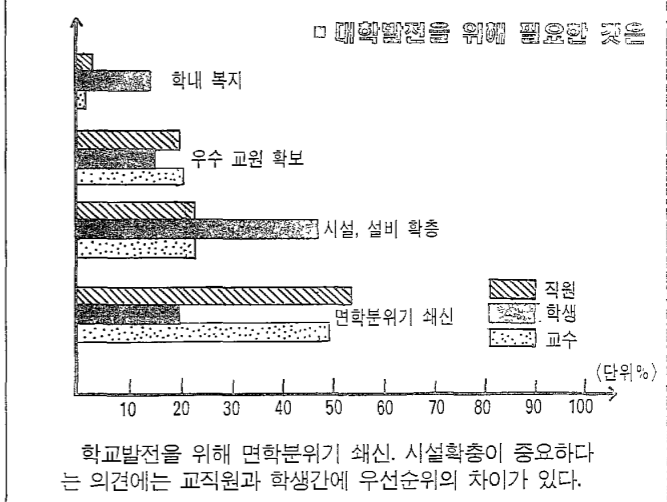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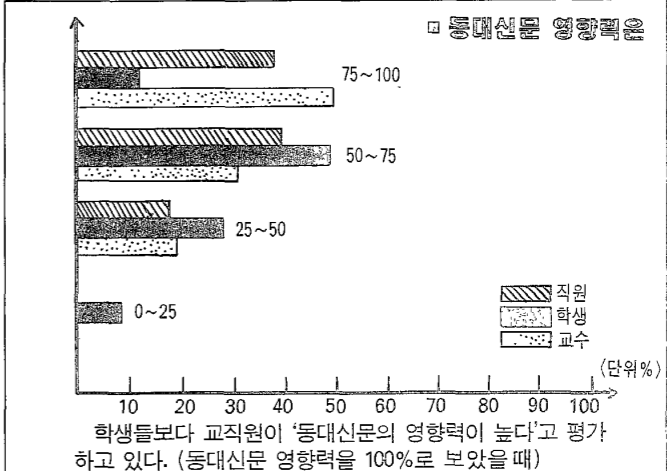
직원 처우개선에 필요한 것으로는 △직원 복지개선(42명 45.2%) △직원충원·임금인상(각각 17명 18.3%) △명예퇴직·사무기능직 제도 개선(17명 18.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원노조에 대한 평가는 '제 역할을 하고 있다'가 46.2%(43명)이었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22명 23.7%) '소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13명 14.0%)는 부정적인 시각이 37.7%나 됐다.

개별질문-학생 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인간관계(231명 32.3%) △학업(196명 27.5%) △취업(193명 27.0%) △정치·사회(11명 1.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전공분야의 능력구비(553

명 49.4%) △공입없는 연구(196명 27.4%) △사제간의 정(83명 13.0%) △공정한 학정평가(45명 6.3%)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총학생회가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으로 △건전한 학풍조성(256명 35.8%) △대학문화 창달 및 보급(167명 23.4%) △후생복지 문제(145명 20.3%) △학내민주화(89명 12.5%) △사회비판(24명 3.4%)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0년 이후 학생들의 시각이 변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동대신문의 기능으로 학내소식 전달과 여론조사, 교양지식전달을 꼽는 것이나 총학의 학내 민주화와 사회비판 사업보다 건전한 학풍조성, 대학문화 보급 등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보다 교직원들이 본지의 영향력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학교발전을 위해 면학분위기 쇄신, 시설확충이 중요하다 는 의견에는 교직원과 학생간에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다.



설문현황

(동대신문 관심도)

- 1. 동대신문에서 가장 관심있게 읽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① 학내 보도기사
② 학술기사 ③ 사회기사 ④ 문화기사 ⑤ 여론 (동광광장) ⑥ 사설 및 칼럼
2. 더 비중있게 다뤘으면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① 정치·사회 ② 문화, 예술 ③ 독자참여란
3. 여론수렴과 영향력에 대해 점수를 매기다면?
4. 대학신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내소식 정보 전달 ② 여론조정 ③

교양지식전달 ④ 비판 ⑤ 사회변혁 운동 (학내 문제)

- 1. 대학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면학분위기 쇄신 ② 시설, 설비확충 ③ 우수교원 확보 ④ 학내복지
2. 본교 제3캠퍼스(자연과학캠퍼스)설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2-1로) ② 그저 그렇다 ③ 반대한다(2-2로) ④ 모르겠다
2-1.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① 서울캠퍼스의 과포화된 공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② 실용 위주인 단과대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다. ③ 지역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④ 기타
2-2.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① 캠퍼스간 이질감이 깊어진다. ② 이전 학과의 위상이 떨어진다. ③ 분산이전 이후 다

은 단과대를 포함한 전체이전의 가능성이 있다. ④ 기타

- 3. 각 대학에서 추진중인 학과조정(학과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3-1로) ② 필요하지 않다(3-2로) ③ 잘 모르겠다.
3-1.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① 전공 선택분야가 넓어진다. ② 대학 행정상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③ 사회적 추세이다. ④ 기타
3-2.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① 학과의 전문성을 살릴 수 없다. ② 학생들의 분산으로 인해 과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진다. ③ 통합이후 사회 진출 선택의 여지가 넓게 된다. ④ 기타
4. 현재 분교에서 진행중인 학과조정(학과통합)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내 구성원들의 흥분한 논의없이 진행중이다. ② 학과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③ 단순히 대학종합평가에 대비방안으로 형식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다. ④ 기타

- ① 학내 3주체의 하나로서 직원의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학교 행정운영상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② 학생, 교수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다. ③ 형식적인 주제일 뿐이다. ④ 잘 모르겠다.
2. 직원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직원 복지개선 ② 직원 충원 ③ 명예퇴직제도, 사무기능직인사제도 개선 ④ 임금인상
3. 현 직원노조에 대한 제평기를 한다던가?
①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수용, 제 합의를 하고 있다. ② 소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③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④ 잘 모르겠다.

(학생)

- 1. 대학생활중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① 학업 ② 인간 관계 ③ 취업 ④ 정치, 사회 ⑤ 취미활동 ⑥ 기타
2. 교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전공분야의 능력구비 ② 공입없는 연구 ③ 공정한 학정평가 ④ 사제간의 정 ⑤ 적극적인 사회활동
3. 현재 총학생회가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건전한 학풍조성 ② 사회 비판 ③ 학내 민주화 ④ 후생복지 문제 ⑤ 대학문화 창달 및 보급

하고 있다. ⑤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① 잘 모르겠다.

- 1. 대학생활중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① 학업 ② 인간 관계 ③ 취업 ④ 정치, 사회 ⑤ 취미활동 ⑥ 기타
2. 교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전공분야의 능력구비 ② 공입없는 연구 ③ 공정한 학정평가 ④ 사제간의 정 ⑤ 적극적인 사회활동
3. 현재 총학생회가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건전한 학풍조성 ② 사회 비판 ③ 학내 민주화 ④ 후생복지 문제 ⑤ 대학문화 창달 및 보급

SKC 플로피디스크 advertisement featuring a man with a gun and a 3.5-inch floppy disk. Text includes '에러는 없다!' and '10배 보상제도'.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 260-3491-2 (0561) 770-2057 하이텔 (ID: 2603491, press11)

“동대 체육부를 살리자” 재정지원등 관심 필요 경주캠 중앙위원 단식 돌입 등협무산...학우 기대 와해

지난 10일부터 경주캠퍼스 중앙 운영위원회 간부들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지금까지의 등록금투쟁 성과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이번 사태는 학교 당국의 무성의한 태도와 경주캠 현실에 대한 인식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등록금 지원납부를 시작으로 전진대회를 통해 등록금 부담 인상과 경주투자 확대 예산에 대한 학생대표 참여 등에 대한 학우들의 이해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현학기의 3분의1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협상 자체가 무산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1만 학우들의 기대와 신뢰가 어지럽혀져 버렸다는 문제보다도 앞으로 있을 경주투자권 확보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현재 전국의 대학들은 앞으로 있을 대학시장개방을 준비하기 위한 학사개편과 투자, 교육시설 확충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 캠퍼스의 실정은 어떠한가. 대학평가인정제를 앞두고도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법정교수 충원도 안된 상태로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통폐합을 한다니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러한 졸속 행정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고 여기에 아무런 대처 없이 끌려 다니는, 그래서 우리의 권리와 지위가 잃어지기 전에 1만학우 모두가 함께 투쟁해야 할 것이다. 자치권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투쟁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지금 단식농성에 들어간 중앙위원들은 학생회나 자치기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 경주 자치권을 쟁취하고 미래 동국의 몇몇한 주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잊지 말고 1만 동국학우들의 학원 자주화 열기를 모아 우리의 대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재단과 학교당국은 성실한 자세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성열 (상경대 회계학과) 손승표 (경상대 무역학과)

당당한 발언을 기다리며

이렇듯이 어느하루 어느날 그렇지 않은 때 얼마일까마는 4월 피의 꽃 지천으로 피어나는 본노로 절규로 그리움으로 눈물짓는 봄의 길머리 그 4월입니다. 그들처럼 씩씩하게 버리지 않는 칼날로 제 심장만 쪼고 있군요. 남은게 없더구요. 그때의 죽음이, 그들의 피가 무슨 의미냐 구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구요. 그래서 다시, 그들의 삶을 체화하고자 하는 시간들은. 이제 무슨 소용 있느냐구요. 당신은 한번의 싸움도 없이 패배한 채 허투를 먼저 배워. 진보를 위장한 진부함에 머물러. 걸터지게 돌아설 변명으로 너절할 뿐 아시잖아요. 지금도 싸움중임을 보고 있잖아요. 입 닫으라. 부끄러운 침묵 보이지 않는 말들은 차라리 입 닫으라. \* '제발 이럴때 누가 당당하게 발언해 줄 사람 있나' \* 속: 김철수작 김남주님의 유고시집발문 기문에서

통/문/칼/럼 진짜요령

‘상식의 허’가 준 깨달음 고교시절 나는 어쩌다가 추리 소설에 깊이 맛을 들이게 되었다. 먼저 추리소설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코난도일과 모리스 르블랑과 아가사 크리스티 등에 빠져들다 공부때문에 짧은 밤은 더욱 짧아지게 되었고, 이것이 포사이드나 엘러리 퀴등으로 발전할 즈음에는 학교성적에도 그 여파가 상당히 미칠 지경에 이르렀다. 작가와와 두뇌전쟁, 보물찾기의 스킬과는 사뭇 다른 진짜 스킬, 교묘히 감추어진 트릭의 틀바구니를 발견하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보는 일, 내가 출즈가 되고 프로의 탐정, 브라운 신부가 되어 영리 실태를 풀어보는 재미. 정말 그랬다. 추리소설은 내가 단순한 독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한가운데 직접 들어 참여하고 당사자가 되는 것에 묘미가 있었던 것이다. 그 많은 추리소설중에서도 ‘잃어버린 편지’라는 단편은 지금도 자주 떠오른다. 읽은지 30년이상 되는터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대강 이런내용. 매우 중요한 편지가 어떤 방에 감춰져 있는지 확실한데 아무리 속속들이 뒤져도 찾을 수 없었다. 도대체 그 편지는 어디에 감추어진 것일까. 온갖 지혜를 짜내어봐도 행방이 묘연했던 그 편지. 그 답은 참으로 싱거웠다. 허무하기까지 했다. 편지찾이에 그냥 못하였던 것이므로 허술한 다른 편지봉투에 넣어져 보란듯이 편지찾이에 있는 그 편지를 찾느라 벽틈, 시트, 책상의 비밀서랍등을 샅샅이 뒤졌던 것이 아니던가. 편지가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가장 광범한 장소가 상식의 허를 찌른 셈이 되었다. 세상일도 이와 비슷할거라 생각한다. 요즘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생각도 많이하고 머리도 많이 쓰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자신만 이렇다만 헬렌 톨보일수 있었으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이 머리를 요리조리 굴리게 되니까 오히려 일어나 대인관계가 배배 꼬이기 쉬운 법이다. 지식이 도리어 결말이 되고 지혜가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이다. 내 경우에는 체질적으로 자기 발달, 권모술수의 처음부터 거리가 멀었다. 곧이곧대로 우직하게 밀어붙이는데, 당장은 손해가 나더라도 있는 그대로 사는 것, 맞다고 여긴 그대로 그냥 참고 버티는 것. 그런 특질로 오늘날까지 살아왔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남보다 크게 앞선건 아닐지 모르나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난 22년간의 직장생활을 통해 요령부리는 경쟁자들이 나보다 훨씬 앞서서 나가는 것을 여러번 바라보았고, 얼마후 그들이 이런 저런 형태로 낙오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렇다. 내 인생과 사회생활의 요령을 굳이 말한다면 요령은 부리지 않는 것이 유일한 요령이었던 것이다. 중요한 편지일수록 광범한 곳에 두자. 특히 머리보조 모던걸 해결하려는 요즘 세대에서 굳이 저 자기 위치를 지키려면 꾸밈없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진짜 요령은 굳이 찾아다니면 다닐수록 더욱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다. 이제 곧 사회에 나갈 재학생들이여, 또는 막 사회에 들어선 후배들들이여, 알맞은 요령을 부리지 말고 쿨직하게 살자. 곧이곧대로 우직하게 세상을 살아보자.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발행지연, 신문에 대한 믿음 상실 사진부분 지면 할애 늘렸으면

동대신문을 항상 기다리고, 관심 갖고 지켜보는 독자인 한사람으로서 근간에 제일 아쉬운 것은 발행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인 기자들이 공부하면서 신문을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지만 수요일자 신문의 혹은 목요일, 혹은 금요일에 발행된다는 것은 독자의 신문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차후에 신문 발행일을 필요일자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지난호(제1171호) 동대신문을 보면서 특히 아쉬웠던 것은 이 신문을 만든 사람들이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를 알수 없을 정도로 각편 기사로 가득 채워져서 전체적으로 답답하고 산만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기사량이 넘

동/약/광/장

목errick 동대신문 창간 45주년 축하합니다... 동/약/광/장 온방골...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알립니다

◆신입생 독후감 최우수상 당선작 - '장자'를 읽고

# 생각·인간상식에서 벗어나려는 욕구 생겨 '장자', 인위적 조작없는 '자연스러움'역설

'장자'를 읽으면서 내 머릿속을 줄곧 떠나지 않은 생각 하나가 있다. 생각속에서 벗어나는 일,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그것이다. 아무런 의심없이 또는 남들이 하는대로 이것은 좋은 것이고 저것은 나쁜 것이라고 판단해 왔고 그에 맞춰 삶을 꾸려왔던 내 태도를 그 뿌리부터 뒤집어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 것이다. '장자'는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결국 자유로와지고 질 것을 권유하는 것이다.

'장자'는 내편과 외편 그리고 잠편의 총 3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종의 대화록인 점은 '논어'와 비슷하지만, 공자 한 사람이 이야기를 이끄는 '논어'와는 달리 많은 중심인물이 편마다 등장하면서 대화가 전개된다. '장자'의 이야기에서는 결코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무념한 가운데 이야기를 읽다보면 '아, 이것이 진실이구나'하고는 눈치챌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한다. 어린이가 동화를 읽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알맹이를 발견할 수 있지만, 논리에 길들여진 이성을 앞세워 장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장자의 진실을 들을 수가 없게 된다. 장자의 이야기는 항상 새로이 생각하고 상상속에서 자유로와지는 지혜를 준다. '장자'는 한 세상 사는 일은 여관에 한번 드는 일과 같다고 말한다.

인생이란 하나의 여정이며, 이 세상엔 그 여정중에 목어가는 여인숙인 것이다. 그 여인숙 곧 '장자'에는 모두 철인들이 묵고 있어서 우리가 그 인물들을 직접 만나도록 해 주고 그 인물들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주 많다. 소재도 다양하고

등장인물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전편을 통해 '장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하나의 주제안에 관통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자연인이 되라고 하는 것, 자연화 또는 물화(物化)시키는 것이다. 그 예로 '장자'는 자연을 소의 네 발로, 문화를 소의 코뚜레로 비유하여 인간에게 문화라는 것이 소의 코뚜레처럼 불편한 것이고, 자연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장자가 공자와 다른 점은 바로 그것이다. 공자의 도덕은 인위적인 것이라면 장자의 도덕은 자유로와지

고 하여 비로소 나는 뜻을 이루어 내 큰 슬픔으로 삼게 되었다. 내가 슬프고있었다면 어찌 이리히 크게 될 수 있었겠는가. 너나 내나 다 하찮은 것이다. 서로 하찮은 것들끼리 어찌 서로 하찮다고 할뜰겠는가" 사람의 편에서 보자면 아무쪼록도 슬모가 없지만 그 슬모있음때문에 그렇게 크게 자란 상수리나무는 쓸모없음이 바로 쓸모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무용(無用)의 용(用)이야말로 만물을 자유롭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소요유'편에 보면 아무 것에도 걸림이 없이 노니는 것, 즉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있으며 스스로 비롯된 것이 자유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있다. 막고산의 신인(神人)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견우에게 연숙은 마음속에도 장님과 귀머거리가 있다고 핀잔한다. 상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눈으로 보고 새로운 귀로 듣는 사람은 언제나 사물의 변화에 무관하며 조작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신인(神人)이며 무한히 자유로와서 아무런 욕심도 없는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자유란 자연과 동의어로서 스스로 있는 경지가 아니면 완전한 자유의 경지가 될 수 없다. '소요유'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자면 어떤 사물이 쓸모없느냐 없느냐를 제 중심에 놓고 저울질하는 버릇을 버려야 한다. 그저 사물을 내가 서로 스스로 있지만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자유이고 그 자유가 소요유인

것이다. 결국 앞서 말한 무용의 용은 자유와 연결되고 자유는 또한 사물과 내가 하나이면서 스스로 있는 물화(物化) 통하는 것으로, '장자'는 연결된 하나의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여 알기 쉽고 느끼기 쉽게 들려주는 것이다.

유명한 장주의 풍자이야기도 위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장자'를 읽지 않았어도 한번쯤은 들었을 그 이야기는 삶이 어쩌면 한바탕 꿈인 것이라고 말한다. 장주가 나비가 된 꿈을 꾸다가 깬데, 우리는 그것을 장주가 나비가 된 꿈을 꾸는 것이라 고 말할 수 있는가 말이다. 나비가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잊어버린 그 것이 바로 어울려 사는 길이라고 말한다. 자기의 감정에 노예가 되어 자기를 잊지 못하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에 주인이 되어 자기를 잊을 것이다.

'장자'의 이야기는 수많은 말지만, 결국 모든 이야기는 자연스러움이라는 주제로 귀결지어진다. 가을집승의 털갈이 태산보다 크고, 어려서 죽은 아이가 칠백년 산 팽조보다 오래산 것이라는 논리가 무위자연이다

장주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물화, 즐거운 물화에는 상해도 없고 차별도 없으며 무한한 변화를 서로 즐기면 된다. 나비는 장주가 되어 즐기고 장주는 나비가 되어 즐기면 된다. 사람이 위대한 존재이고 나비는 하찮은 벌레라는 성급한 판단을 버리고 그대로 자연으로 이해하고 자연에 동화되는 것이 삶의 길인 것이다. 이렇게 '제물'에서는 사람은 자기 홀로 선택받은 존재이고 온갖 사물이 자기를 위하여 있다는 듯 착각하는 것을 뒤집어 준다. '제물'의 의미처럼 있는 것이면 모두다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잊어버린 그 것이 바로 어울려 사는 길이라고 말한다. 자기의 감정에 노예가 되어 자기를 잊지 못하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에 주인이 되어 자기를 잊을 것이다.

'장자'를 읽고나니 비로소 시아가 열리는 듯 눈앞이 환해진다. 넓은 벌판의 광활함을 본듯 '가슴이 시원해진다. 세상을 넓게 보는 법, 사물을 거꾸로 보는 법, 뒤집어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오랜 여행을 끝낸 느낌이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 긴 여행이 시작된 건지도 모른다. 모든 인위적인 구속과 상식에서 벗어나 하염없이 자유롭고 아무런 걸림없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여행, 그 여행의 출발점에서 나는 마치 나비가 된 느낌이다. 장주인지 나비인지 구분할 수 없는 바로 그 나비탈이다.

이 선 용 (이간장학 경제학과)

## 달 하나 천 강에

### 세대단절



요즘엔 한 해가 곧 한 세대라는 우스갯말이 실감나게 들리기도 한다. 국민학생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한 학년 차이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좀 과장이 끼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후배들과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대학생들을 여럿 만나기도 했다.

무엇이 이토록 급박한 세대간격을 만들어 놓았을까? 스피드만이 요구되는 현대산업사회 때문일까? 아니면 주위 둘러볼 것 없이 앞으로만 달려갈수록 하라는 경주마주적 교육풍토 때문일까? 아무튼 요즘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고 좁은 의식공간에 갇혀 자체만의 증세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이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독자적 삶을 살면서 서로 대화하고 다양한 독서를 통해 인생을 준비할 기회를 기성세대들은 봉쇄하지 않았던가? 결과로 그들은 구체적 삶의 경험이 없고, 경험의 결여는 곧 대화의 단절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들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러한 일년차 세대단절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 사실 이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이만 줄이기로 하고,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세대단절 곧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단절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세대 차이는 같은 대상이라 문제를 새롭게 발견적인 시각에서 보는 데서 생긴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세대단절은 무관심 내지 적대감으로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어서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 함께 흘러 하나의 강을 이루어야 할 기성세대와 신세대들이 틀과 기르처럼 각각 떠돌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도 기성세대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 요즘 우리 집의 가풍은 이렇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되는가?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를 나누고 경험의 동질성을 누리며 서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집이 또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부모세대는 자질을 지어놓고도 그 결과인 자식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면서 세대만을 개탄하고 있다. 부모세대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생애에 급급하며 자신들을 희생했다는 것은 참작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이런 가운데서도 사려깊게 자신들과 다음세대들이 공유할 가치관을 제시했어야 했다.

윤석성 인문대 국문과 교수

### 심사평

## 상대적 가치에 대한 이해부족... 폭넓은 독서 요구돼

홍기삼 (문과대 국문과 교수)

이번 독후감 심사에서 최우수상에는 '장자'로부터 얻는 자유(이부대 경제학과 이선용), 우수상에는 '대화 4년, 다기를 사회와 의 낮아지기' (덕어국문학과 김유정), 가작으로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전기공학과 김민석), '삼국유사를 읽고' (정철행정학과 신경호), '권력이동을 읽고' (정보관리학과 정성아) 등 5편을 수상자로

로 뽑았다. 올해의 독후감은 특정 작품에 편중된 흥미 없이 읽지만, 그 내용은 대체로 일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반가웠다. 특히 주어진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비판하는 능력, 체계적인 구성 등의 향상은 논문고사의 영향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맞춤법, 피어쓰기, 원고지 사용방법의 숙지 등에서는 비교적 일정수준을 보이면서도 문장에서는 비문(非文)이 많았다. 복문에서 많이 발견되는 비문은 한 문장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 했기 때문인데 이 경우는 간결한 여러개의 문장으로 처리하면 비교적 바른 문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른 문장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글을 직접 써보는 일이 철결함을 학생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장자'로부터 얻는 자유는 논리의 전개, 발상, 문제의 해석, 표현력, 언어감각 등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 주었고, 우수상 수상자인 '대화 4년, 다기를 사회와의 낮아지기'는 몇 군데 비문만 없었던 최우수작과

겨울만한 여러가지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기쁨 청소년 감수성, 언어감각, 미래와 이상에 대한 날카로운 예견 등은 어떤 글보다 청년이 쓴 독후감임을 실감시켜 주고 있다. 끝으로 이번 심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독서경험의 부족과 범위의 협소로 인하여 상대적 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 나아가 가치수용의 위험성까지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의 대학생활을 통해서 폭넓은 독서를 경험하기 바란다.

### 비디오 소개

## 시민 케인 - 실존인물 생애 바탕으로 어린시절 행복 그려 냉전식 사고 꼬집는 블랙코미디 -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결적으로 인정되는 영화가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피되는 상황에서 '시네마 테크'는 대가없이 흥한 시하는 공간을 집중공략하고 좋은 영화 보급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엔 내놓은 비디오는 오순 웰즈의 데뷔작 '시민 케인'과 스탠리 큐브릭의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이 두편이다. '시민 케인'은 윌리엄 허스트라는 실존인물의 생애를 비판적으로 묘사했다. 작품은 '케인'이라는 당대 최고 언론재벌의 죽음으로 시작되는데, 케

인이 죽으며 남긴 '잠미꽃 봉오리'라는 말에 의문을 가진 뉴스 영화기자 톰슨이 사건을 추적한다. 케인의 정부 수잔으로부터 알게된 케인의 과거는 화려한 명성과 부의 이면에 걸레 깔린 고독이다. '잠미꽃 봉오리'는 케인이 어린시절 타고났던 썬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1: 우주의 오딧세이'로 유명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는 모스크바에 핵공격을 명령해 3차 대전을 유발시키는 광적인 장군을 그린 블랙코미디다. 첫장면은 하늘에서 공중급유를

받는 전투기의 승유를 남녀의 성기와 같이 묘사한다. 주연을 맡은 피터 셀러즈는 소련의 핵위협에 피해망상증세를 보이는 장군, 진보적이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허수아비 미국대통령, 헬레어를 타고 마차 자신의 목을 졸라버릴 것처럼 보이는 기계팔을 가진 악마적인 천재 스트레인지 박사등 1인3역을 소화해낸다. 기계문명에 지배되는 미래사회의 인간관계를 심각하게 해부해 놓은 이영화는 당시 평범했던 냉전식 사고를 통렬히 꼬집는 사회비판적 주제를 담고있다. (문화부)

태평양그룹 50 1945-1995 무한 책임주의

# 나를 아는 화운데이션- 렛세스

태평양패션 LaVora 라보라

## 나, 렛세스로 탈출한다

자기 것이 아닌 건 벗자  
감혀있던 나를 연다  
내 것을 찾는다  
내 가슴이 열린다

“렛세스”는 우리나라 최초로 신세대 2,018명의 체험을 실제 측정 조사하여, 내 몸에 꼭맞은 새로운 화운데이션입니다.

Let's be Xes

# 등투 방향전환 단식투쟁

## 현 시점 선전·요구안 관철 목적

제12대 총학생회(회장 배문석·철4)는 등투방향을 전환, 지난 10일 원효관 중정에서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 위원들이 무기한 단식투쟁과 함께, 총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총학생회는 등투상황을 알리는 한편, 학생들의 등투열기교조를 위해 지난 6일 제2차 등투전진대회를 가졌으나 한의대 1백여명을 비롯 전체 1백5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등투열기교조에 실패했다.

또한, 지난 6일 오후 3시 학교측 3차장과의 면담을 가진 학생측은 학교측이 학과통합안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던 점, 시설투자부분에 정확한 확답을 듣지 못한 점 등에 대해, 오후 6시 중앙위를 통해 현 시점에서 등투결정사항을 재모색해야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그리고 제8차 협상이 학교측과의 마찰로 무산되자 등투방향전환에 더욱 더 의견이 모아졌다.

이로인해, 학생측은 지난 8일 중앙위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 시점을 알리는 한편, 요구안 관철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회장 배문석군은 "우리의 입장은 꼭 실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신입생 2%차등인상분에 대한 정확한 경위와 교육시설확충, 학교·학생 연석회의, 경주부총장권한확대등이 가장 우선 해결되어야 할 우리의 최소 요구안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측은 어제(11일) 오후 3시 부총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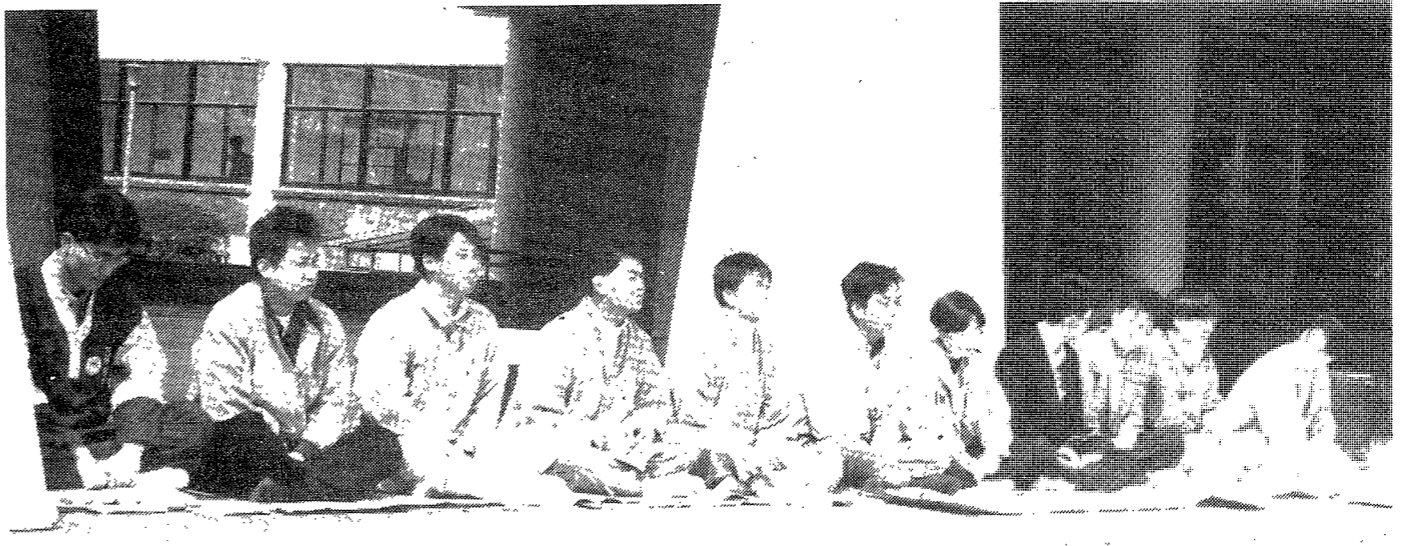
이번 면담에 대해 학자투 위원장 정희환군은 "학교측이 신입생 17% 차등인상부분에 대해서 현대세가 그러하니 문제가 없다"고 말해 "현재 우리가 제시한 부분의 내용에선 진전된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는 오늘(12일) 오전 12시 녹야원에서 제13차 등투전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전진대회의 경우, 중간고사와 축제기간을 앞두고 있어 등투전진대회의 학생참여도가 앞으로의 등투에 큰 영향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제2차 전진대회의 경우 한 대표자가 "단체에서 연락받지 못해 과학생들을 참석시키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중앙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각 학과 별로 연계되지 못했음이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총학생회는 1학년 등록금 2%차등인상분에 관련해 내일(13일) 오후 5시 녹야실에서 1학년대표자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난 10일부터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원효관중정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 정식...1천원으로 인상

#### 질개선과 분식류 부분인상도 함께

학생회관식당 식비인상이 지난 7일 오후 1시 교직원휴게실에서 3차(학교측, 학생측, 업주)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1차 재협상과 동일한 대표들이 참가해 이뤄진 이번 협상에서 업주측은 현실적 물가인상에 맞춰 식비인상을 주장한 반면, 학생측은 질개선을 고려한 식비인상을 주장하여 처음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학부위측이 정식을 물가인상에 맞춰 1천원으로 인상시키고 분식류가격을 동결시키는 1안과 정식을 1천원으로 인상시키나 질개선을 고려하고 분식류를 부분인상시키는 2안을 제시, 업주측이 2안을 선택했다.

이번 조정된 식비가격은 아래와 같다. △정식=9백원→1천원 △분개스=1천원→1천1백원 △냉면=8백원→8백원 △김밥=5백원→5백원 △짜장면=6백원→6백원 △우

동=6백원→6백원 △삼겹=6백원→8백원 △수제비=5백50원→5백50원 △만두국밥=7백원→7백50원 △국수=4백50원→5백원 △곰탕=1천5백원→1천5백원 △비빔밥=8백50원→9백원 △소고기부추전=6백원→6백원 등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정식배급시 월요일, 금요일 오전12시부터 오후4시까지 2종류의 밥을 주기로 결정했으며 특식은 없었다.

협상결과에 대해 학부위측은 "지난 협상때보다 결과는 미비하지만 현 시점에서 최선의 합의책이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모니터제도를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오늘(12일) 오후2시 사무처장실에서 사무처장과 총학생회장 및 3주체가 참여하여 협상결과를 인준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 12대 총대 출범식 및 감사 정기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

총대의원회(의장=안대수·경제4) 출범식이 지난 6일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이번 출범식은 각단대별 대의원들과 여러 기구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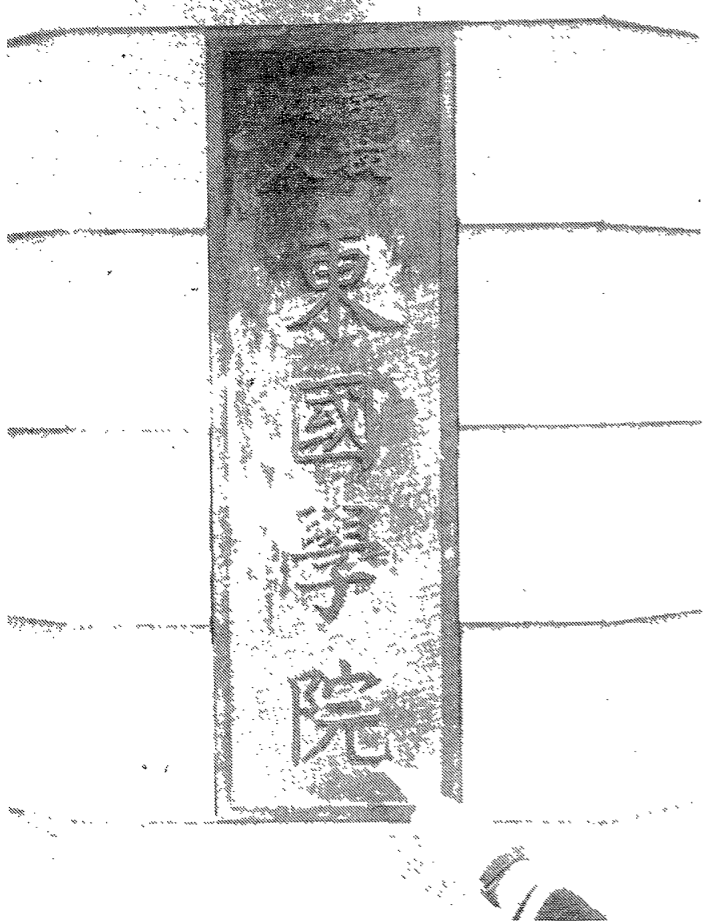
또한 출범식과 함께 정기총회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대의원 정족수미달로 무산되고 총회안건의 보고회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총회안건보고내용은 △95학년도 1학기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심의의 △집행부 일괄 인준권 △등록금 투쟁 결과보고 등이 보고됐다.

한편 총대의원회는 95년도 1/4분기 감사를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각 기구별 학생회 사무실에서 실시한다.

감사시행세칙 제11조 1, 2항에 준하는 자료를 내용으로 감사일정은 △19일=의대, 학부위, 불교대, 법정대, 동아리 연합회 △20일=한의대, 자연대, 이부대, 인문대, 상경대 △21일=언론협의회, 교직원지원위원회, 자율위, 여학생회, 총학생회 등이며 21일 등반대회로 인해 감사일정에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카메라 고발... 院 → 園



◇정문 앞에 쓰여진 '東國學院'은 학교법인 명칭이 '東國學園'으로 바뀌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 그대로 일 뿐 아니라 글자체도 고유의 로고체가 아니다.

DC카드발급 시기에 대해 학부위측은 "제작상의 문제점으로 4번이나 새로 제작하여 발급시기가 늦춰졌다"고 밝히는 한편, "지난해 가맹점이 시내중심지역 학생들의 이용이 저조했던 점을 고려, 올해는 실질적인 성공을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가맹점주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졸업생 취업률 56%

'95학년도 졸업생 취업률이 56%로 최종 집계됐다.

학생과(과장=김용기)는 올해 취업률이 지난 2월22일 졸업식을 기준으로 전년도 52.4%보다 약4%증가한 5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취업률집계는 과별특성을 고려하여 취업현황조사표를 각 과별 배부하여 조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인문대 노래한마당

인문대 학생회(회장=한정원·고미사4)는 '제2회 인문대 노래한마당'을 오는 30일 오후5시 원효관중정에서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내일(13일) 오전12시까지 원효관중정에서 접수받아, 13일 오후 5시 A207에서 예선을 치른 후 본선참가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인문대측은 "인문대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므로 인문인 모두 함께 동참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주력했다"고 밝혔다.

### 4·19기념 주간 행사

#### 기념집회·마라톤·등산대회 개최

제12대 총학생회(회장=배문석·철4) 사회부(부장=고홍렬·영문4)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를 '4·19 기념주간'으로 정했다.

기념주간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17~20일=소강당 0, 오후 1~3시, 5~7시 비디오상영(한국전쟁, 전대열에서 한총련까지 모래시계)

△18일=4·19기념집회(오후1시, 녹야원), 추모제(학생회관 로비), 초청강연회(부경 연합회장 배다지 선생, 4·19조영숙에 6월 지지 선거와 관련 정권 재조명), △19일=오후3시,

마라톤대회 '제15회 동국인 등산대회'를 실시한다.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다.

△일시=오는 21일, 오전8시30분~오후6시 △대상=전동국인(재학생, 동문, 교직원) △정수일=14~20일 △접수처=백성탐약(우천시 원효관 중정) △구성은 4인1조(재학생, 동아리+생활관, 교직원+동문) △시상은 최우수상(1조), 응발정진상(2조), 교과리상(3조), 언꽃상(3조), 특별상(1조) △기타=점심 도시락 개인지참

### 한의대, 학장실 점거농성

#### 해부학 교실 운영 정상화 촉구

한의대 학생회(회장=이영욱·본2)는 지난 10일 조지해부학교실의 정상 운영을 촉구하며 학장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학생회측은 지난 4일 교수측과 면담을 통해 해부학교실 운영에 필요한 전임강사 1명, 해부기사 1명, 실습기자재(사체포함)와 이제까지 수업결산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교수측은 문서로 확답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학생회는 지난 6일부터 한방병원 현관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이후 학생회는 단식투쟁을 계속하며 학장실 점거농성으로 이어졌다.

장은 "애초부터 대학교육협의회와 의견조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또한 95년 서울캠퍼스, 97년 경주캠퍼스 종합평가인정제가 다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영계열 학과평가인정제 준비로 인해 경영학과 학생측과 이견이 생겼던 컴퓨터실은 지난 10~11일 양일간 칸막이 설치작업을 완료했다.

### 상경대 학과평가 무기한 연기

상경대(학장=황윤식·회계학) 경영계열 학과평가 인정제를 오는 6월 첫째주에 실시기로 했으나, 무기한 연기되었다.

무기한 연기의 이유를 황윤식 학

장은 "정각원 앞 수위실 신축공사가 지난달 6일부터 중단되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관재과(과장=이강현)는 당초 오는 5월 20일까지 완공하기로 예정했으나, 지난달 3일 승석구충장이 학생측과의 면담중 정각원앞에 범종을 세우겠다고 발언함으로써 진행중이던 공사를 중단시킬수 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신규직원 모집

구분	모집부서	인원	요건
서울	일반직(행정)	약간명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학과제한 없음)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4.5 만점) -1965. 5. 1 이후 출생한 자에 한함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PERSONAL COMPUTER 사용 가능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선별시 우대)
	기술직(사서)	약간명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4.5 만점) -1965. 5. 1 이후 출생한 자에 한함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도서관학 관련 전공자로 정서사자격증 소지자 -PERSONAL COMPUTER 사용 가능자 (워드프로세서 또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경주	일반직(행정)	약간명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학과제한 없음)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4.5 만점) -1965. 5. 1 이후 출생한 자에 한함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PERSONAL COMPUTER 사용 가능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선별시 우대)
	기능직(전기기사)	약간명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력 소지자 -1965. 5. 1 이후 출생한 자에 한함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전기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실무경험자 우대

2.전형방법  
 \* 일반직, 기술직 : 필기시험(영어, 논문)과 면접을 시행 당일 실시  
 \* 기능직(전기기사) : 필기시험과 면접을 시행 당일 실시

3.제출서류  
 가. 지원서(본교 소정양식).....1통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통  
 다.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대학 포함).....1통  
 라. 자격증 사본(해당자).....1통  
 마. 불교도 신행증(본교 소정양식).....1통  
 (조계종 산하 사찰 주지스님 직인 및 개인 인장 날인)  
 바. 경력·보훈증명서(해당자).....1통

4.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95. 4. 12(수) ~ '95. 4. 19(수) 17:00 한  
 5.시험일시 및 장소: '95. 4. 22(토) 10:00 본교 서울캠퍼스 교사당  
 6.지원서 교부 및 접수: 서울캠퍼스 총무과 및 경주캠퍼스 총무과  
 (☎ 02-260-3065~6, 0561-770-2064~5)

\*우송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동국대학교**  
 건학이념=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습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게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 이념으로 한다.

### 전통국인 춘계수계대법회

1. 전계사: 오복원 대중사

2. 일 시: 2539(1995)년4월 18일(화) 오후 4시

3. 장 소: 정각원 대법당

4. 수계접수

1)접수기간: 1995년 4월11일~17일

2)접수방법: 전화 또는 소정양식에 접수

3)접수장소: 정각원 사무실

4)연 락 처: 260-3015/6

**정 각 원 장**

### 사회교육전문위원과정 이수신청서접수

'95학년도 사회교육전문위원 이수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아 래**

1. 신청자격: '95년 3월현재 2학년 재학생

2. 개설학과: 전 학 과

3. 신청서: 소정양식(각 대학 교학과 비치)

4. 제출기한: '95.4.12(수) ~ '95.4.18(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 교학과에 비치된 사회교육전문위원과정 이수요령을 참고할 것.

**사 범 대 학 장**

### 심리검사 및 상담안내

심리검사와 상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래-**

1. 심리검사: 인성검사, 적성검사, 지능검사 등

2. 상 담: 학업, 성격, 대인관계, 유학, 직업 및 진로선택 등

3. 문 의 처: 학생생활 연구소 (교수회관 3-1호: 구내전화 3506)

1995. 4.

**학 생 생 활 연 구 소 장**



◇4·19등반대회가 오는 15일 북한산에서 열린다. 사진은 작년 등반대회 모습.

### 백상의집 공개경쟁입찰 21일까지 공사...5월15일 개점

북지사업 공물관리위원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과 이하 공관위)는 지난 3월30일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백상의집 위탁운영계약과 공개경쟁입찰 계획을 상정했다. 절차 및 일정은 △공사기간=4월10일부터 4월21일 △인허가=4월7일 △입찰신청=4월13일 △입찰등록=4월13일부터 4월15일 오후 1시까지 △입찰심사 및 면담=4월17일부터 4월19일 △낙찰자발표=4월20일 오전11시 △사업개점준비=4월21일부터 5월13일 △준비점검=5월11일부터 5월13일 △개점=5월15일이다.

본방침으로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할 계획이지만 공고후 현업자 외에 응찰자가 없으면 운영위의 재투부에 계약하되 계약기간은 올 12월31일까지 하고 입찰방법을 재검토한다. 또한 일반입찰자로 인한 업체 선정의 단순성을 배제하기 위해 응찰자와 면담을 실시하는데 심사기준은 대학 문화 및 복지문제에 대한 이해도와 성실성, 봉사성이다. 입찰심의위원회는 입찰의 심사와 심사기준의 수정 및 조정을 위하여 지난 3월31일 구성했으며 공관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업본부장, 직원대표인, 학생대표인을 위원으로 한다. 입찰설명회는 운영계약의 조건과 방법, 사업의 내용, 사업계획서의 작성제출요령, 낙찰자 선정 기준·방법을 내용으로 하여 사업필지를 설명자로 공관위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 신설학과 공간 문제 누적 야총 "가건물이라도 만들어야"

신문방송학과, 광고학과, 중문학과 등 야간강좌 신설학과 학생들은 학생회장 및 집행부를 중심으로 아침, 점심, 저녁에 중문, 불상암, 공관 앞에서 공간문제를 포함한 신설학과 문제점을 알리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야간강좌 총학생회장 황인구(영문3)군은 "학교측에선 최소한 신설학과를 위해 가건물이라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는 20일에 있을 교수재용에서 광고학전공 교수를 경영학과에 포함하여 채용한다고 들었다"며 "광고학과와 경영학과를 통합시

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후 야간강좌 총학생회는 신설학과 문제와 관련된 질의서를 학교측에 보낼 계획이다. 4.19관련 문건 배포 결성 야간강좌 1학년 대표자 회의가 지난 7일 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황인구·영문3)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에 있었던 총학생회 출범식 평가가 있었고 오는 4·19등산대회 때 4·19의 의미가 담긴 문건 배포가 결정됐다.

##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 고양" 4.19기념 등반대회 15일 개최

학생처(처장=박준규·교육학)는 4·19기념 제26회 동국인 등산대회를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북한산에서 개최한다.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학생과 산악부에서 접수중인 이번 등산대회는 4·19를 기념하고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양한다는 취지 아래 등산대회 이외에 4·19 기념식, 장기자랑 및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4인 1조로 구성되는 이번 대회는 상은 조구성원, 복장, 협동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최우수상(1조), 우수상(2조), 자원보호상(3조), 장기자랑상(4조)이 수여되고 참가율이

높은 학과에게 특별상이 주어진다. 한편 총무처(처장=열준근·통계학)는 참가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학교버스를 수유전철역에서 4·19탑까지 임시운행한다. 버스 시간은 오전 8시10분부터 9시까지이며, 15분간격으로 운행된다. 서남총련 출범식 오는 19일 본교 만해광장 제5기 서남총련 출범식이 오는 19일 본교 만해광장에서 치러진다. 출범식은 '국가교육 재장학보 및 교육개혁을 위한 서남총련 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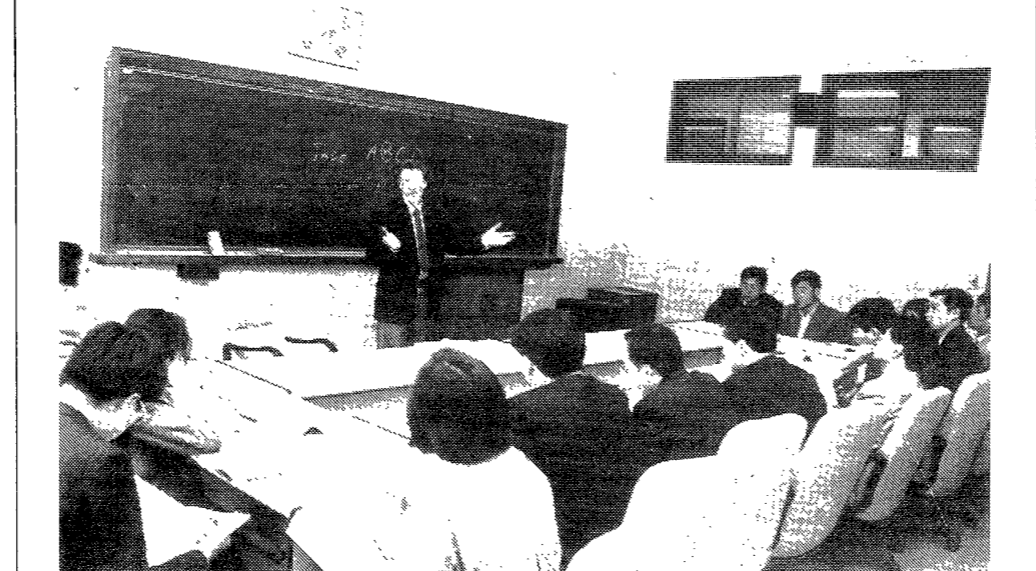
대회'를 시작으로 2부인 여는 마당과 본마당 그리고 3부 실천투쟁으로 이어진다. 여는 마당은 새내기 뜰내기 한마당, 통일 응원대회, 과장 합창제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이루어져 있고 본마당은 새내기 중심의 응원공연을 포함한 제5기 서남총련 각 학교 총 부총학생회장 소개, 정치발언, 의정문, 출범선언문 낭독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출범식 이후 실천투쟁으로 만해광장에서 명동성당까지 촛불행진을 통한 거리선전전 및 정리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 "행정편의상 총동창회비 고지서 동봉" 학교·총동창회, 대책위 공개질의서 답변서에 밝혀

총동창회비 징수규정 및 문제 해결을 위한 4학년 대책위(위원장=박용규·경제4)가 지난 3월과 4월에 각각 학교측과 총동창회에 보낸 공개질의서 답변이 지난 10일 대책위측에 전달됐다. 먼저 학교측의 답변을 살펴보면 등록금 고지서와 총동창회비 고지서가 동봉되어 발송된 이유에 대해 "행정편의상 학교측에 동봉했다"며 "그러나 총동창회비를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납부는 학생들 스스로에게 맡겼다"고 밝히고 88년 학생총회 결정사항의 일방적 결지에 대해서는 "학생총회의 결정을

학교가 무조건 따른다는 것은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92년 지급결정되었던 총동창회비 문제와 그 다수 및 운영에 관한 질문에는 "지급결정되었던 총동창회비는 목적장학회에 그대로 있다"며 목적장학회 사본을 답변서에 첨부했다. 한편 총동창회측은 동봉 발송 이유에 대해 "행정편의상 학교측에 동봉했다"며 "그러나 총동창회비를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납부는 학생들 스스로에게 맡겼다"고 밝히고 88년 학생총회 결정사항의 일방적 결지에 대해서는 "학생총회의 결정을

등록서를 제출했다. 또 학교발전 및 재학생들에 대한 계획에 "1백주년 기념 사업추진회와 동국발전 협의를 통해 총동창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특히 총동창회는 '동우장학회 10억 모으기 3개년 운동'과 '총동창회관 건립 5개년 계획'의 내용을 담은 장기사업계획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과 총동창회측은 이후 논의의 지리가 있을 때 끼어어 융화겠다는 뜻을 밝혔다.



◇ Good Morning... 직원노조는 지난 3일부터 희망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어회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어회화교육은 직원들 복지개선의 일환으로 학교의 일정 지원을 받게 돼 직원들의 외국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혜 기자)

### 외국어 실습시설 확충

외국어교육원(원장=김정배·영어영문학)은 외국어 실습시설 확충을 위한 공사를 끝마치고 지난 10일 오전 11시30분 동국관 (M)303에서 오픈식을 가졌다. 새로 실습시설이 설치된 강의실은 모두 5개실로 각 1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식은 송석구총장과 외국어교육원장을 비롯한 30여명의 교수·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대학원 원우한마당

대학원 학생회는 오는20일 출범식 및 원우한마당을 시행한다. 이 행사는 오전10시 만해광장에서 체육대회와 함께 이뤄지며 기획부장(이성수·사회학과 석사 3학기)은 "참여하는 학생회 건설을 위한 자리매김으로 많이 참석하길 바라며 후원에 주는 만큼 학생회가 힘을 가진다"며 대학원생들에게 당부의 한마디를 했다.

### 동연 출범식

제11대 동아리 연합회(회장=김용욱·회공) 출범식 및 '95년도 제1차 전체 동아리대표자회의'가 오늘 (11일) 오후4시30분에 학생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식전 문화행사로 시작된 출범식은 △출범선언 및 고사 △연대사 △출범선언문 낭독 및 폐회 순으로 행해졌고 △조정행부 인준 △신규 동아리 등록사항 및 준동아리 심사 △정동아리 승격 동아리 확인 △제11대 동아리연합회 총노선 및 예산안 확정등이 대표자회의의 일반 안건으로 채택됐고, 특별 안건으로는 △회칙 부분 개정 및 심의 △공간 문제가 논의됐다.

### 졸업앨범 '주노'입찰

지난 7일 학생회관 2층 연화원에 있었던 '96년도 졸업기념 앨범제작' 공개 입찰에서 '주노'가 4인8천2백원을 적어 입찰위원의 예상가격 4인8천1백83원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입찰했다. 한편, 졸업준비위원회측은 앨범분량축정 실수로 인해 앨범가격이 3%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대, 재개발지구방문

사회대 학생회(회장=정심근·사회4)는 금호 1-6 재개발지구를 매주 정기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사회대는 불교대, 법대, 사범대 학생 총 50여명이 모여 금호 1-6 재개발지구를 찾아가 어린이 놀이방,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벌였다.

### 회전무대

#### 자리 지킴이

○...식당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서 빨간기방, 까망기방, 핸드백, 종이기방등 다양하고 화려한 기방들이 즐비해 있어 '아무도 없자마자'라고 중얼거리는 데. 학생들사이에서의 자리 경쟁으로 '밥'보다는 먼저 '자리'를 맡아야지만 마음놓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유비무환 현상이라고. 이에 자리없는 한 학우 "나도 빼가면 좋겠다"고 한탄하며 "사자없는꼴"이라고 푸념.

#### 새내기 밤마당

○...새내기 한마당이 아니라 새내기 밤마당(?) 지난 3일 만해광장에서 열린 '95새내기 한마당'이 총학생회의 사전준비 미흡으로 인해 일정이 1시간 가량 늦게 진행됐다. 이로인해 3백여명으로 시작된 한마당은 1백명도 채 안되는 인원으로 끝을 맺었다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한마당 "새내기 한마당도 한총련 출범식 떨어지려나?"

#### 차위를 걷는 여인

○...화창한 봄날에 웬 풍류가 아니라, 진흙과 얼음의 한 학우가 후진 중 뒤쪽에 주차돼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지나가던 학우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해. 사고 후, 계속 차를 세우지 못해 여러 학우들에게 위협을 안겨주.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차도와 인도의 구분도 없고, 주차장도 미흡한 상황에서 차량만 늘어나니 이리다가 '차위를 걷는 여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 혼선+합선은 누전

○...본교는 갑작스럽게 경영계열 화과평가 인정을 준비하던 중, 공간문제 해결을 위해 몇개학과는 논쟁이 붙은 상황까지 진행됐는데. 현재 상황을 알아본측, 예초부터 평가인정은 대학교육협의회와 의견조정 문제로 혼선(?)이 빚어져 다시 평가 인정제가 연기 됐다는 것. 이에 한 학우 한마당 "혼선이 합선되어 누전이 돼 버린 모양이죠."

### 전과안내

학칙 제 26조 및 학사내규 제36조에 의거하여 산업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공급하고 적성에 맞는 학과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연계열학과 학생의 전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대상학과  
가. 이과대학: 전산통계학군(야), 반도체과학과(야)  
나.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산업공학과  
다. 자연과학대학: 생화학, 전산통계학과, 전자계산학과

2.대상인원: 대상학과 입학정원의 10%이내

3. 시 기: 매학년초 (96 3월초)

4. 자격: 자연계열학과 1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학기마다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으로 총성적 평점평균이 3.5이상 이어야 한다.  
(2학년 1학기 등록을 마친자)

5. 기 타: 전과는 소속 캠퍼스 대상학과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속대학 교과과에 문의한다.

**교무처장**

### 영어실습 교육보강안내

1.목적  
국제화와 개방화시대에 대비하여 대학교육의 국내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인성교육, 외국어교육, 컴퓨터교육강화의 3개 교육과제 중 하나인 영어실습(Lab)교육 방법을 개선하여 시청각교육을 추가로 실시함으로써 외국어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2. 대상 '95학년도 제1학년 전체학생

3. 수업방법  
1학년 재학생이 수강하고 있는 영어실습(LAB)1시간외에 시청각교육 1시간을 추가로 실시함.  
가. 실시시기: '95학년도 1학기 '95년4월17(월)부터  
나. 시 간: 1) 월, 금요일 07:30~08:30 (주간학과 재학생: 학과별 강의시간 배정표에 따라 실시함)  
2) 화, 목요일 07:30~08:30 (야간학과 재학생: 학과별 강의시간 배정표에 따라 실시)  
3) 토요일 15:00~16:00 (야간학과 재학생: 희망자에 한함)

5. 성적반영  
가. '95학년도 제1학기는 '95.4.17(월)부터 교육을 실시하며, 시청각교육 2/3이상 출석자는 영어실습 성적평가에 반영함  
나. '95학년도 2학기부터 영어실습 수강자는 영어실습(Lab)외에 시청각 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며, 출석일수 1/3이상 결석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음.

6. 교 재 교재명: Listen & View (제 1,2학기 사용가격 7,000원)

**교무처장**

### '95년 예비군 교육시 특별유의사항

1. 입소시간 준수:  
08:00시 이후는 절대 입소불가 (이러한 이유도 해결 안됨)

2. 예비군 복장: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고무장, 허리띠 모두 착용 (단 1가지도 미착용시 절대 입소불가)

3. 교육일정: 지정된 교육일자에 참석바람

4.28(금)	5.1(월)	5.2(화)	5.3(수)	5.4(목)
불교대 예술대 경상대	이과대 이부대	공과대 (단 식공 화공 제외)	문과대 법과대 사범대 공과대 (식공, 화공)	사과대 생명자원과 학대 8개대학원

95. 4. 5일(동대신문)자의 5.21(월)은 5.1(월)일자로 수정함.

4. 기타 강조사항:  
가. 주민등록증(학생증)반드시 지참  
나. 이동중 안전사고에 유의  
다. 잠지, 라디오등 개인용품 휴대금지  
라. 지정된 교육일정에 불참사유 발생시 예비군 본부(전화:260-3072~3)로 문의 바람  
1995. 4.

**동국대학교 예비군 연대장**

◆신라인의 문화의식

# 만파식적, 신라인 음률통치사상 구현의 상징

## 군사력·법률에 의존하지 않은 높은 문화의식 반영

겸아 겸아 수로를 내 놓아라.  
남의 아나 앓아간 죄 얼마나 크  
나 네 만일 거역하여 내 놓지 않으면  
그들로 잡아 구워 먹으리 '거북  
의 노래' 수로부인을 바다의 용왕으로  
하여금 내놓게 한 민중이 부르던  
'중구사금(뜻사람이 참소하는 말은  
쇠라도 녹일만큼 무서운 힘이었다)  
의 노래이다.

현대인들의 정치적 무관심에  
반해 신라인은 중구사금의 의식으로  
살아왔던 것이다. 이런 신라인의  
문화와파적(의정=김대중-문화  
원(원장=이상열)에서 경주시 후원,  
신라문화진흥회(회장=김대중-문화  
중 교감) 주최의 문화강좌 '문화재  
해설의 밤'을 개최한다.

최근 발표된 것 중 '신라의 음률  
천하 통치사상'과 '장보고의 원인  
(圖仁)'이라는 두 주제로 신라인의  
모습을 그려보자.

신라인의 음률 천하 통치사상  
세계의 모든 국가와 민족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법률  
·정보조직·종교 등에 의존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신라인은 또 달리 국가  
통치의 이상적 이념을 음률과 사람  
의 절묘한 조화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라인의 높은 문화  
의식을 반영한다. 음률과 사람은 표  
리일체로써, 전인완성하며 중생을  
제도하고 천제지변과 병난을 다스  
리고 또한 금수고흥에까지 전달하  
는 것으로 알았다.

또한, 이런 신라인의 음률 통치사  
상을 집약적으로 구현한 상징이 바  
로 '만파식적'이라고 한다.

만파식적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  
면, 삼국통일 후 신라왕때 문무왕과  
김유신이 죽어서 무마음을 합쳐 신  
문왕에게 전하니 "소리로서 천하를  
다스리라. 한소로 치면 소리가 나  
지않고 두손을 마주치면 소리가 나  
는 이치이니 갈라지기도 하고 합쳐  
지기도 하는 이상한 대나무를 베어  
피리를 만들어 불면 반드시 은 나  
라인이 평화로워질 것이라"했다는  
것이다.

장보고와 원인(圖仁)  
일본인이 국제정세와 대륙문화  
배우고자 당에 파견한 사절, 견당사  
를 보내기 위해, 청해진에 거점을  
두고 해상권을 장악하던 장보고의  
도움을 지대했다고 한다.

장보고는 신라인들이 노예상인에  
게 유교당해 중국에 끌려간 것을  
보고 연안주민을 지키기 위해 수비  
관의 지위를 요청하여 청해진 대사

로 임명되었다.

중국을 방문한 일본 두번째 천태  
종 지도자이자 최후의 견당사인 원  
인은 본인이 남긴 제1급의 일기일  
뿐 아니라, 중국의 생활양식에 관한  
최초의 면밀한 기록, '입당구법행기'  
를 남겼다.

원인은 중국연안의 치외법권적  
권리를 갖고, 대부분의 배를 움직인  
신라인 뿐 아니라 장보고로부터 최  
상신권을 건립하고 창원 5백석을  
제외한 원인행을 원조한 적상법회  
신라인 뿐 아니라 장보고로부터 최  
상신권을 건립하고 창원 5백석을  
제외한 원인행의 도움을 기려 일본 내  
적상사원을 건립하려 했으나 그 뜻  
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그 뒤 일  
본승려들이 적상신공을 지어 전한  
다고 한다.

국경에는 정치의 벽이 있으나 인  
정에는 그것을 막는 벽은 없다. 오  
로지 원인을 끝까지 도운 것은 신  
라인이었으며 불법법안이 이루어지  
던 장안을 탈출하게 한 것은 신라  
인 승려이다. 이들의 국경을 초월한  
인간으로서의 협력은 과거의 유머  
니즘에 시대를 넘어 공감함을 갖게한  
다.

(박요선 기자)

영화의 패러독스

'엄마와 별과 말미잘' 유현목 감독을 만나

# 어린시절에 대한 향수 - 자연회귀 그리고자 "불교진리 담은 영화 만들것"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편수의  
영화를 제작한 사람, 고희의 나이로  
두달반동안 섭렵을 해낸 사람.  
이런 지엽적인 사실들보다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감독, 유  
현목(영국영화) 명예교수를 만나  
지난 1일 개봉된 영화 '엄마와 별과  
말미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  
았다.



◇'말미잘'은 바닷가에서 자웅동체생물 말미잘을 보며 성에 조금씩 눈을 뜨는 소년의 성장영화이다. 사진은 유현목감독과 영화의 한장면.

- 지난 80년에 발표한 '사람의 아  
들' 이후로 작품 발표가 없어 사람  
들은 감독이 영화를 그만둔 것이라  
추측했었다. 14년만에 다시 영화를  
만들게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 그동안 영화를 만들어 보라는  
제의를 여러번 들어왔었으나, 마음  
에 드는 시나리오가 없었다. 주로  
다른 작품들이 무겁고 관념적인 것  
이 많아 비흥행감독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후회 양상에 힘을 쏟고있  
었다. 영화진흥공사 시나리오 모집  
당선자인 권재우의 작품이 어린 시  
절에 대한 향수와 자연회귀 본능을  
자극했고, 그래서 작업에 착수했다.  
- '말미잘'이라는 제목에 담긴 뜻  
은.

= '바다의 아메모네라' 불리는 말  
미잘은 해안가에 사는 자웅동체 생  
물이다. 영화는 소년의 성장을 그리  
면서 성(性)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성장영화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 기존에 만든 작품들은 주로 사  
실주의 영화, 리얼리즘 영화라는 평  
을 받았는데, '말미잘'은 어떤가.  
= 네 영화의 전반기는 '잃어버린  
청춘(1957)', '오반탄(1961)' 등 사회를  
무대로 비판기능을 했었다. 이영화  
는 인간의 내적세계, 영혼과 구원문  
제를 다루려고 했다. 꿈이라는 혼  
란한 도시와 자연의 본질을 상징하  
는 섬을 배경으로 삼았는데, 소년  
수영이 꿈중에 있다가 섬으로 돌아  
가고 싶어하는 모습은 자연회귀를  
나타낸다고 할수 있다.  
- 80년대 시대사의 상징인 '꿈주  
민중항쟁'을 그려, 이것은 감독이 침  
묵했던 빈 기간을 채운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 소년 수영이 꿈중에 있는 고  
네 집을 틀렀다가 데모하는 현장을  
보고 "빨갱이가 많구나"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정치적 사안뿐만 아니라 소년이 보  
게되는, 말하자면 매춘같은 사회학  
적으로 초점을 맞췄다.  
- 영화는 주로 소년과 자연을 카  
메라에 담고 다른 현실들은 지워버  
리는 장면이 많고, 혹자는 멜로영화  
라는 지적도 하고 있는데.  
= 소년이 성장을 하면서 성(性)  
에 대해 눈을 뜨는 과정을 담고 있  
기 때문에. 엄마와 육지에서 온 아  
저서, 선생님과 그의 애인, 동네무당  
과 청년 사이의 사랑과 불륜등을  
그린 것이며 아이의 이해하기 어려  
운 성윤리과피를 뜻한다. 이런 것들  
이 멜로적인 색채로 비칠 수도 있  
겠다.  
- 이후에 또 영화를 제작할 뜻이  
있는지.  
= 영화제작이라는 것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이 가는 작업  
이다. 특히 이번 작업은 섬에서 활  
영한 것이다. 더욱 힘들었지만, 즐겁  
게 해냈고, 자신감이 생겼다. 앞으로  
인간의 내면과 영혼을 그리는 작품  
이나 불교의 심오한 진리가 담긴  
작품을 만들고 싶다.

### 대학 문화

#### ③ 동국인 신드롬

매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 각종 일간지에서 영화  
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 읽거나,  
광고를 직접 만들어 발표를 하  
기도 하는 것들이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아카데미상 6개부분을 석권할  
만큼, 흥행률이 높고 내용이 있어  
서도 아이큐 투자리수의 인간승  
리라는 감동적인 소재를 담았  
고, 컴퓨터 그래픽기술로 한층 격을  
높였던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상  
기해보자.

이영화는 베트남전, 워터게이트  
사건등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  
고 있지만 정박아인 검프의 단순  
한 낙관주의를 통해 역사적 사건  
을 희화화했다는 비판도 아울러  
받고있다.

영화의 예술성이나 감동보다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영화 외적  
세계에 나타나고 있다.  
검프가 어릴때 그의 어머니가  
들려준, "인생이란 초콜릿 상사  
는 어떤가. (이유리 기자)

### 매아리

#### 로리타 콤플렉스

▲로리타라는 소녀가 있었다.  
이소녀는 14살이며, 보는 사람들  
은 모두 첫눈에 반할만큼 아름답  
다. 어느날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  
와 사는 로리타의 집에 켈러라는  
사람이 찾아왔다가 로리타를 보  
고 당장 이집에 세를 든다. 어머  
니와 켈러는 결혼을 하지만 켈러  
의 관심은 여전히 로리타에게로  
쏠려있고, 어머니는 그사실을 모  
르다가 켈러의 일기장을 보고 경  
악을 금치 못한다. 충격으로 뛰어  
나간 어머니는 마침 달려오던 차  
에 치어죽고, 켈러는 걸로 보  
고엔 아버지 역할을 그러나 실제로  
는 연인 역할을 하며 행복해한다.  
결말은 비극이다. 영화배우로 만  
들어 주겠다는 다른 남자의 꼬임  
에 로리타는 도망을 가고 켈러는  
수년후에 이남자를 죽이고 만다.  
▲이것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소설이다. 70년대 전세계를 풍미  
한 '로리타'는 곧 나이는 남자가  
어린 소녀를 사랑하는 유행(?)을  
만들고야 마는데, 이것이 이른바  
'로리타 콤플렉스'다. 불륜과 살인  
으로 정리되는 이현상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잠잠해졌  
으나 최근 영화계에서 그바람이  
다시 불고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본 영화, 비디오로 꼽히는  
'메우'는 살인 정부업자 레옹과  
12살소녀 마틸다가 등장하고, '벨  
파이어'와의 인터뷰에는 피마 뱀

### 토박이

서 승 현 (8)

한국형 민주주의

### 내가 경험한 LG

#### ② 인턴사원 김기환편

# 반도체 연구소는 오렌지 연구소?

인턴사원이기는 하지만 첫 출근하는 날은 약간의 긴장감마저 감동했다.  
경직까지는 아니지만 사회인으로서의 나는 여전히 어색한 생각만 들었다. 우편동 LG반도체 중앙연구소... 바로 내가 인턴생활을 한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나는 U.S 설계실에 배치되었는데 그곳에 배치된 사람은 인턴사원 13명 중 나 혼자만이었다. 사실 학교에서 배운 얼마되지 않은 나의 어설픈 지식을 갖고 그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조금은 쑥스러움 일이었다.  
이러한 걱정으로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은 팀 실장님이었다. 인사와 약속 그리고 몇마디 짧은 대화.  
그것으로 나의 모든 우려는 말끔히 씻겨 내려갔다.  
어렵고 걱정스러워하는 나의 속내를 마치 다 들여다 보거나 한 것처럼 따뜻하고 격의없이 대해주는 실장님의 모습은 오히려 내가 미안한 감이 정도였다.  
이후에 알게된 것이지만 그러한 분위기는 내가 인턴사원이라서가 아니라 연구소 전체의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분위기는 연구소 사람들의 자유로운 옷차림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출근할때 보면 그들의 옷차림은 오렌지색 뺨칠 정도였다.  
꼭 빼입은 정장이 있는가 하면 무스에 캐주얼을 차려 입은 사람,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 보기 좋은 사람 등등 다양각색의 옷차림은 연구소가 아니라 학교에 와 있는 착각을 일으키게 할 정도였다.  
그들은 지시와 통제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일이 좋아 정열을 불태우는 뜨거운 젊은이들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젊음들에게 최대한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해주는 문화가 연구소 전체를 움직여 나갔다.  
LG의 반도체연구소 - 그곳은 진정 살아있는 조직이었다.

김기환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4년)  
(LG반도체 95 동계인턴사원)